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오 세 열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과 중국의 중소기업 금융제도 비교연구

- 정책금융제도를 중심으로 -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마 효 문

한국과 중국의 중소기업 금융제도 비교연구

- 정책금융제도를 중심으로 -

오세열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마 효 문

인 준 서

마효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_____(인)

심 사 위 원_____(인)

심 사 위 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感 謝 話

大學院入學的日子仿佛就在昨天,轉眼間却已經到了臨近畢業的時候.論文的完成也就標志着我兩年研究生生活的結束.在這宝貴的兩年中,我遇到了許多恩師益友,无論在學習上還是生活上都給予了我无私的帮助,讓我在諸多方面都有所成長.感恩之情難以用語言量度,謹以最朴實的話語致以最崇高的敬意.

首先我要感謝我的導師,吳世烈老師.我常常慶幸于我的幸運,在异國的學習生活中能遇到這樣好的老師,吳老師不僅在學業上給予我精心指導,還在生活上給予我无私的關怀.同時我要感謝鄭浩廷老師,百忙之中指導我的論文.從選題到論文順利完成的每一步,都离不開兩位老師的悉心指導,正是有了兩位老師的无私帮助,我才能克服一个又一个的困難和疑惑.在此向兩位老師致以誠摯的謝意.

感謝在論文審查過程中給予我指導和忠告的李炫錫老師和李知洹老師.同時感謝在研究生學習期間給我諸多教誨和帮助的經營學部的各位老師,一路走來,從你們身上我收獲无數,却无以回報,僅此一幷表達我謝意.

感謝我的朋友,感謝你們在失意時給我鼓勵,在失落時給我支持,感謝你們和我一路走來讓我倍感溫暖.

最后我要感謝我的父母,沒有他們就不會有今天的我,養育之恩沒齒難忘.

“路漫漫其修遠兮,吾將上下而求索”是我最喜歡的詩句,就用這句話作爲論文的結尾,也是一段生活的結束.今后我會更加努力,好好生活.

2016년 6월 16일

논문개요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은 생산 및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중소기업은 내·외부적인 문제로 인해 자금조달 상의 애로가 계속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중소기업은 정보 비대칭 때문에 시장실패를 완화하기 위하여 정책금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중소기업이 사회·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중소기업 자금조달 실태 및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양국의 효율적인 중소기업 금융시스템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양국 중소기업 정책금융 시스템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실제적 제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중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중소기업 금융 현황 및 애로사항, 정책금융 실태 등을 실증분석하고, 한국의 조사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spss 20.0 및 excel 201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양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평가·조사시스템의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민간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은 정책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둘째, 양국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중소기업 발전단계에 따라 각각의 단계에 맞게 지원하기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설립해야 한다. 셋째, 양국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 심사 표준을 동일하

게 제정하고 심사 표준에 부합한 중소기업에 빠르게 지원해야 한다. 넷째, 정부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 중국정부는 한국처럼 대리대출 지원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정부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적극성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양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주로 은행대출 방식에 의존하고 다른 지원방식을 탐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중소기업 자금조달 상의 애로를 완화하려면 중소기업 자체의 자질을 제고하고, 민간금융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중소기업판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주요어: 중소기업, 자금조달, 애로, 정책금융 제도

목 차

논문개요

Ⅰ.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방법과 구성 ····· 5
   1) 연구의 방법 ····· 5
   2) 연구의 구성 ····· 5
3. 기존연구 ····· 6

Ⅱ. 정책금융에 대한 이론적 고찰 ····· 9

1. 정책금융 개념 및 작용 ····· 9
   1) 정책금융의 개념 ····· 9
   2) 정책금융의 역할 ····· 12
2. 중소기업 정책금융 ····· 13
   1)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개념 ····· 13
   2)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의 구성 ····· 15
3. 융자 곤경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16
   1) 맥밀란 갭 ····· 16
   2) 정보 비대칭 ····· 17
   3) 신용할당 이론 ····· 18

Ⅲ. 중국과 한국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현황 비교 ····· 20

1. 중국 중소기업 자금조달 현황 ····· 20
   1) 중소기업 기준 및 일반현황 ····· 20

2)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현황 ····· 23
2. 한국 중소기업 자금조달 현황 ····· 30
1) 중소기업 기준 및 일반현황 ····· 30
2)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현황 ····· 34
3. 비교분석 ····· 39
1) 유사점 ····· 39
2) 차이점 ····· 39

Ⅳ.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 및 개선 방안 ····· 41
1. 중국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 및 개선 방안 ····· 41
1) 중국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 ····· 41
2) 중국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의 개선 방안 ····· 45
2. 한국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 및 개선 방안 ····· 50
1) 한국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 ····· 50
2) 한국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의 개선 방안 ····· 56

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실태에 대한 실증분석 ····· 59
1. 중국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실태 분석 ····· 59
2. 한국과의 비교분석 ····· 70

Ⅵ. 요약 및 결론 ····· 73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3-1> 중국 중소기업의 분류 ····· 21
<표 3-2> 중국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상의 지위 ····· 22
<표 3-3>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추이 ····· 25
<표 3-4> 중국 중소기업대출 비중 ····· 26
<표 3-5> 상장한 중소기업 수량 ····· 27
<표 3-6> 중국 그림자 금융 규모의 추산 ····· 29
<표 3-7> 중소기업의 민간 융자 금리 ····· 30
<표 3-8> 한국 중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기준 ····· 31
<표 3-9> 한국 중소기업 주된 업종별 규모기준 ····· 32
<표 3-10>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추이 ····· 35
<표 4-1> 금융 중개 지원대출 프로그램별 구성 내역 ····· 51
<표 4-2> 온렌딩 지원조건 ····· 53
<표 5-1> 응답기업의 일반적 현황 ····· 60
<표 5-2> 유형별 주요 자금조달 원천 ····· 62
<표 5-3> 유형별 중소기업의 외부 차입시 대출 조건 ····· 64
<표 5-4> 유형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애로 ····· 66
<표 5-5> 유형별 외부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효과에 대한 평가 ····· 67
<표 5-6> 유형별 정책자금을 지원한 경험 ····· 68
<표 5-7> 유형별 정책자금 지원의 바람직한 방향 ····· 70

그림 목차

<그림 2-1> 맥밀란 갭 ····· 16
<그림 3-1> 기업의 자금조달 유형 ····· 24
<그림 3-2> 한국 중소기업 자금조달 추이 ····· 34
<그림 3-3> 은행의 기업 대출 연체율 추이 ····· 36
<그림 3-4> 중소기업의 주식·회사채 발행을 통한 증자금액 ····· 37
<그림 4-1> 연도별 정부 출자현황 ····· 45
<그림 4-2> 신용담보 분산체계 ····· 49
<그림 4-3> 형행 정책금융체계 ····· 50
<그림 4-4> 모태펀드 출자 추이 ····· 55
<그림 4-5> 타 부문과 협조체계의 구축 ····· 56
<그림 5-1> 주요 자금조달 원천 ····· 61
<그림 5-2> 외부 자금조달 경험 ····· 61
<그림 5-3> 조달한 자금의 주요 사용처 ····· 63
<그림 5-4> 중소기업의 외부 차입시 대출 조건 ····· 64
<그림 5-5> 차입한 자금의 연 평균금리 ····· 65
<그림 5-6>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애로 ····· 66
<그림 5-7> 정책자금 제도의 문제 ····· 69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1세기는 중소기업의 시대이다. 선진국이나 신흥국가를 막론하고 중소기업은 이미 각국 국민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성장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엔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업화 가속, 도시화 추진, 과학기술 혁신, 지역 간 균형 발전, 경제 활성화, 산업 다양화, 고용창출 실현, 수출산업 확대, 다양한 서비스 제공, 사회 안정화 촉진 등 여러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 중소기업 정보망의 통계에 의하면, 2013년 12월말 기준 중국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4,200만개(규모 이상과 규모 이하 중소기업 포함)에 달하며, 전국 기업 총수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 세금 부담과 수출총액은 각각 58.5%, 52.2%, 68.3%를 차지한다. 고용 면에서 도시 취업 기회의 약 80%를 제공하고 있다.[1)]

한국 중소기업 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으로 한국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341만개에 이르며, 전국 기업 총수의 99.9%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제조업의 생산액, 출하액, 부가가치는 각각 739.9조 원, 737.3조 원, 248.1조 원으로 전체의 47.6%, 47.6%, 49.5%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전체 기업 고용의 87.5%에 달한다.[2)]

독일은 "중소기업이 국가의 중요한 경제 지주"라고 한다. 일본은 "중소

---

1) http://news.cnfol.com/guoneicaijing/20131230/16612686.shtml
2) 중소기업중앙회「2015년 중소기업현황」PP.36, PP.183, 2015.5

기업의 발전이 없으면 일본의 번영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중소기업은 미국 자유경제 제도의 심장"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은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법률 및 정책을 제정하였다.

중국정부는 2000년 「중소기업 발전 촉진 정책에 관한 약간 의견」(關于鼓勵和促進中小企業發展的若干政策意見)과 2003년 「중화 인민 공화국 중소기업 촉진법」(中華人民共和國中小企業促進法)을 제정하였으며, 한국의 경우는 1966년 「중소기업 기본법」을 시행하고 1988년 「중소기업 진흥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밖에도 여러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 및 정책의 시행을 통해 각국은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시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중소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금부족, 인재부족, 낮은 관리수준, 정책 환경 불공평, 사회서비스 체계 불건전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자금조달 상의 애로가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개인 자기자본만의 출자로 창업하기 때문에 자본 규모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것은 선천적인 자금공급 부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는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한 중소기업대출의 제약이 상존한다. 이것은 후천적인 자금공급 부족의 존재를 뜻한다. 이와 같이 평소에도 자금조달 상의 애로에 처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은 특히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의 위험회피성향의 강화로 자금난을 더욱 크게 겪게 된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 상의 애로는 중소기업 발전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시장 경쟁에서 열세에 몰리게 되며, 더 나아가 낮아진 경영성과는 다시 자금조달의 어려

움을 가중시키고 이는 또다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오게 된다.

祁素艷(2012)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중국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를 차지하지만 사용한 금융자원은 20%를 넘지 않는다. 또한 80% 이상의 중소기업에게 자금공급 부족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중소기업 자금 수요량은 7,500억 위안에 달하나, 자금 공급량은 1,701억 위안에 불과하여 자금 격차가 약 5,800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 중소기업 자금조달 상의 애로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처해 있는 현실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 구축은 각국 정부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

중소기업 자금조달 상의 애로는 본질적으로 금융시장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 정부는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각종 수단을 통해 금융시장에 개입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단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금융제도의 도입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처음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를 수립하였으며, 지금까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한국의 경우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196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여 발전시켜 오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정책금융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깨고 경제주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 즉,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정부개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자금조달 상의 문제를 보완해

3) 祁素艷「商業銀行對中小企業的貸款現狀研究」 現代經濟信息, PP.272, 2012

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중국의 경우,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의 엄밀하고 과학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 및 중소기업 자금조달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양국의 효율적인 중소기업 금융시스템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현황 및 정책금융 제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으며, 특히 중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소기업 금융 현황 및 애로사항, 정책금융 실태 등을 실증분석하고, 한국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였다.

중국과 한국 모두 중소기업금융은 간접금융 중심으로, 은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창업이나 기술혁신형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으로 시장실패 영역이 존재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일부 우량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도 정책금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양국 중소기업 정책금융 시스템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실제적 제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방법과 구성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는 문헌연구이다. 문헌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에 관한 통계자료와 조사 보고서, 단행본 및 논문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 인용, 참고하여 실시하였다. 둘째는 실증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결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spss 20.0 및 excel 201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Ⅰ장은 서론 부분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기존연구를 기술하였다. 제Ⅱ장에서는 정책금융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는데, 정책금융의 개념 및 작용,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개념 및 구성, 융자 곤경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다루었다. 제Ⅲ장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Ⅴ장에서는 중국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실태에 대한 설문결과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한국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제Ⅵ장은 요약 및 결론 부분으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 기존연구

중국과 한국의 중소기업금융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 기존문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Chilton(1984)은 미국의 중소기업 정책 효과를 분석하여 정부의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정부의 직접대출지원 및 보증지원이 중소기업 자금조달 상의 애로 개선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Kotter(1992)는 1987년부터 1991년까지 5년간 중국 중소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중국 중소기업 융자 형태 하고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한 자금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동시에 미국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중국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대출지원보다 중소기업의 신용리스크 감소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설명했다.

Kolodko(2000)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한 효과를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에는 정부의 법률상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정책금융체계의 구조 등을 순차적인 진행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曹鳳岐(2001)은 중국 중소기업 자금조달 상의 애로를 해결하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건전한 신용대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신용대출 체계의 구축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정부 주도 신용보증기관의 리스크 보상 체계를 설립하고 신용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家森信(2003)은 중국 지방금융기관의 발전 및 신용담보체계의 구축이

중소기업 융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중국에 있어서 지방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융자의 주요 금융기관이며, 중소기업 자금조달 상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금융기관의 발전을 중시해야 함을 역설하고,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신용담보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安靜東(2003)은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제시하였다. 첫째, 일본은 정부 주도로 법률을 제정하여, 먼저 중소기업의 법률상 지위를 확정한 후, 정책금융체계를 구축하였다. 둘째, 정책금융과 민간 상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셋째, 다양한 지원수단 및 방법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금융상의 애로를 해결하였다. 또한 이러한 일본 중소기업 정책금융체계가 중소기업 금융상의 애로 해결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시장효율성에 대한 파괴 정도도 낮게 유지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盧憲涉(2005)은 한국정부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원한 정책자금은 중소기업 자금조달 상의 애로를 완화하는데 기여하였지만, 소규모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 하부구조의 감독이 부족하면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강동수·이준엽(2010)은 자금조달 상의 애로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은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중국에서 비국유 중소기업은 중국경제의 발전을 주도하기 때문에 중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새로운 발전방향은 소규모 금융기관의 육성, 공평하고 건전한 지원 환경의 제공 등의 측면에서 중국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된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金曉娟·陳志軍(2010)은 한국 중소기업의 성장 및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융자 곤경은 중국과 유사하지만, 한국정부는 정책금융체계의 구축을 통해 비교적 문제점을 잘 해결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체계의 주요 구성 부분은 정책은행 및 신용담보체계라고 지적하였다.

鞏保成(2014)은 중소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외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청이 주도하고 있으며, 통일된 지원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정부는 다양한 지원기관을 통합하여 통일된 전국적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정한·김영도·이시연(2015)은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에 대해 지원 효과가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참여의 확대, 직접투자 방식의 활성화, 지원의 체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Ⅱ. 정책금융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정책금융 개념 및 작용

1) 정책금융의 개념

금융은 자금의 융통을 의미하며, 목적에 따라 크게 상업금융, 정책금융으로 나눌 수 있다. 상업금융은 이윤극대화 목적으로 실행되는 금융활동인 반면 정책금융은 정부가 사회 및 경제 정책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금융활동이다. 상업금융의 주체는 상업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등의 영리금융기관이고 정책금융의 주체는 정책금융기관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정부가 직접으로 출자 또는 보증을 통하여 창립한 기관으로 특정한 분야에서 직·간접으로 정책적 금융활동을 실시한 기관이다. 즉, 정책금융기관은 경제발전, 사회 진보, 거시경제 관리 등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금융지원을 수행한다.[4] 이와 같은 정책금융기관은 다음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가. 조직방식 상의 정부 통제성 : 정책금융기관은 정부가 직접으로 출자, 보증을 통해서 창립하며, 정부 재정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 편이다.

나. 경영목표 상의 비영리성 : 상업금융과 비교할 때 정책금융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정책금융이 자기 자신의 경영효율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책금융기관은 금융기관으로서 정책 원칙을 견지하는 동시에 금융기관 운영의 기본 규칙을 지킨다. 그렇지 않으면 무상적인

4)鐘鳴「關于建立我國中小企業政策性金融体系的思考」安徽大學, 碩士學位論文, PP.10, 2006.4

재정 직접 투자수단과 차이가 없다.

다. 업무분야 상의 전문성 : 정책금융의 업무분야는 농업, 주택, 수출입 무역, 중소기업 등에 집중된다. 이러한 분야는 국가경제의 균형발전, 사회 안정화의 촉진 등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에 맡겨두면 취약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특별한 정책이나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라. 단독 법률·법규의 존재 : 대다수 정책금융기관은 일반 금융기관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독립적인 법률을 통해 경영 목표, 업무 분야, 업무 방식 등을 확정한다.

지금까지 정책금융기관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정책금융이 발생하게 된 이론적인 원인에 대해 고찰한다.

자원배분 효율성은 경제학의 핵심적인 주제이다. 사회적 자원배분은 다음 두 가지 목표가 있다. 첫째는 경제 효율성, 둘째는 사회 합리성이다. 두 가지 목표는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경제 효율적인 배분을 실현하려면 사회 공정과 기회균등을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 합리적인 배분은 경제 효율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양자 간의 상호 조정이 필요하다. 자원배분 효율성의 실현은 경제 효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합리성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경제 발전부분에서 깊은 관심을 두는 문제이다.

시장경제에서 자원배분은 경제주체가 실시하는 것이다. 크게 두 경제주체가 존재하고 있다. 즉 미시경제주체인 기업과 개인, 거시경제주체인 중앙정부이다. 각 미시경제주체 사이에서 사회적 지위는 평등하고 시장 원칙에 따라 공정한 거래·경쟁, 자유로운 선택·결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목표로 자원을 배분한다. 이런 자원배분 방향은 높은 수익률에 따라 결정되어 자원배분의 경제 효율성을 실현한다. 예를 들면, 시장메커니즘의 자발적인 조절을 통하여 자금은 저리 종

목에서 고리 종목으로 흐른다. 그러나 사회 합리성 각도에서 살펴보면, 자금유출 종목(저리 종목)의 자금 수요를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평을 만든다. 따라서 사회구조 평형을 파괴하고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자금 유입 종목이나 지역의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비상업적인 원칙에 따라 경제적 수단을 운용하는 동시에 필요한 정책 수단의 개입을 통해 사회 합리적인 목표 달성을 도모한다.

경제학의 아버지 Adam Smith가 "보이지 않는 손"이론을 제시한 이래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은 서방 경제학자의 추앙을 받았다. 하지만 시장메커니즘은 경제사회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비경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실패[5]를 초래한다. 자원배분 과정에서 시장메커니즘은 "마태 효과"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즉 시장메커니즘의 자발적인 조절을 통하여 미시경제주체는 위험도가 낮고 투자 기간이 짧고 수익성이 높은 종목을 우선 선택한다. 반대로 위험도가 높고 투자 기간이 길고 투자 금액이 높은 종목은 선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가의 산업구조와 지역 간, 부문 간, 업무 간의 발전 불균형 및 배분 불합리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장메커니즘의 작용에서 자금은 농업, 에너지, 교통 산업에서 공업으로 흐르고 빈곤 지역에서 부유 지역으로 흐른다. 단기간 내에 이러한 자원배분은 사회 재산의 증가에 대해 유리한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사회의 발전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정부 개입이라는 "유형의 손"이 필요하다.

---

5) 시장실패는 다음 세 가지요인으로부터 발생한다. ①시장지배력. ②외부성. ③정보 비대칭. 이근영「주요국의 금융제도와 시사점」 한국은행출판, PP.138, 2005.6

2) 정책금융의 역할

정책금융기관은 정책적 특징 및 금융적 특징을 동시에 가진다. 정책금융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6]

가. 신용 중개 : 정책금융기관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자금의 대출자와 차입자 사이에서 자금 중개를 통해 자금의 융통을 실현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특별한 점은 상업금융기관은 신용을 창출하지만, 정책금융기관은 신용을 창출한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나. 사회성 : 정책금융기관의 사회성 역할은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수행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정부의 각도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및 의도에 따라서 투자·융자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촉진한다. 시장메커니즘은 사회적 자원배분 효율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사회적 효과가 높지만 재무 수익성이 낮은 분야는 투자자가 투자를 회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사회의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정책금융기관은 자원배분을 통해 사회적 자원배분 효율성을 역방향으로 촉진한다.

다. 산업 진흥 : 중점산업의 성장 초기에서 미래 발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업금융기관은 투자 태도가 보수적으로 변하게 된다. 정책금융기관은 이러한 산업 분야에 자금을 투입하여, 정부 정책적인 의도와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목표를 구현할 수 있다. 상업금융기관은 이런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확신을 통해 산업의 진흥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만약, 어느 산업 분야에 대한 상업금융기관의 투자 열정이 발생하면 정책금융기관은 이 산업에 대한 투입한 자금을 점차 줄여서 다른 산업으로 자금을 이동시킨다.

---

6) 鐘鳴, 前揭書, PP.14-15

라. 선택적 역할 : 겉으로 보기에는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분야는 정부가 결정한다. 그러나 정부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장메커니즘의 선택결과이다. 시장메커니즘의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장실패 지역·산업, 예를 들면 농업, 수출입 무역, 중소기업, 낙후 지역 등에서 정책금융이 필요하다. 정책금융기관은 상업금융기관을 대신할 수 없으나, 정책금융기관이 상업금융기관의 부족점을 보충하여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마. 서비스 역할 : 정책금융기관은 특정한 활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다. 이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기능을 쌓은 동시에 업무에 대한 정통한 인재들이 함께 모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금융,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책금융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역할 및 진흥 역할이다. 본 연구에서 설명한 중소기업금융을 예를 들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면, 현지 경제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창출이 증가한다. 동시에 기업의 재무 수익성을 높이며, 투자위험을 낮추고, 상업금융기관이나 사영부문의 투자확신을 높일 수 있다.

2. 중소기업 정책금융

1)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개념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정부가 직접으로 출자 또는 보증을 통하여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직·간접으로 융자 및 보증을 제공하는 금융활동이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정책

금융의 주요 분야로 정책금융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농업, 수출입 무역 등의 정책금융 분야에 비해서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다.

가. 정책 대상은 중소기업 : 시장경쟁에서 중소기업은 열세에 몰리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정책금융의 대상이 된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중은 낮은 수준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대기업보다 약하기 때문에 시장경쟁에서 대기업과 맞설 수 없으며, 시장정보를 수집하는 능력도 대기업보다 약하다. 뿐만 아니라 인재 및 자금 부족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능력이 대기업보다는 낙후될 수밖에 없다.

나. 업무상 적은 이익 추구 :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 이윤극대화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적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은 시장경제에서 금융원리에 따라 운용되어져야 하며,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정부가 제공한 자금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경영수익이 필요하다.

다. 중소기업 신용도 제고가 목표 : 세계 각국의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대출 방식을 제공하지만 공통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는 중소기업이 상업은행에서 충분한 대출금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SBA에게 대출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7] 또, 많은 나라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제공하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담보(보증)이다.

위에서 설명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정의 및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는 자금 출처, 지원 대상, 경영 목표, 경영 방식 등 분야에서 일반 상업금융과 차이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7) 白欽先·薛譽華「各國中小企業政策性金融体系比較」中國金融出版社, PP.261, 2001.6

2)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의 구성

각국 경제, 금융 및 발전 상황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는 다르지만, 주로 대출기관, 신용보증기관, 투자 펀드로 구성된다.[8)]

가. 대출기관 : 대출기관은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의 기본적인 구성 부분이다. 현재 존재하는 중소기업 정책 대출기관은 중소기업 정책은행, 정부가 출자를 통하여 창립한 펀드 등을 포함한다.

나. 신용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관은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을 차지한다. 선진국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의 운영 상황을 볼 때 시장경제가 건전한 국가일수록 담보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시된다. 담보기관은 상업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대출금의 보증을 통해 상업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확신을 강화하는 작용을 한다.

다. 투자 펀드 : 투자 펀드의 설립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각국이 자주 사용하는 수단이다. 앞에서 설명한 두 기관과 비교하면, 투자 펀드는 시장화와 영리 목적을 모두 추구한다.

상업금융 기초가 강한 나라일수록 중소기업 정책금융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 이것은 건전한 금융제도와 효율적인 시장메커니즘이 있고, 중소기업의 외부 금융 환경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상업금융 기초가 약한 나라일수록 중소기업 정책금융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것은 자금공급과 수요 간에 비대칭 문제가 존재해서 중소기업이 금융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상업금융이 덜 발달된 대부분의 신흥국가에서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의 존재가 합리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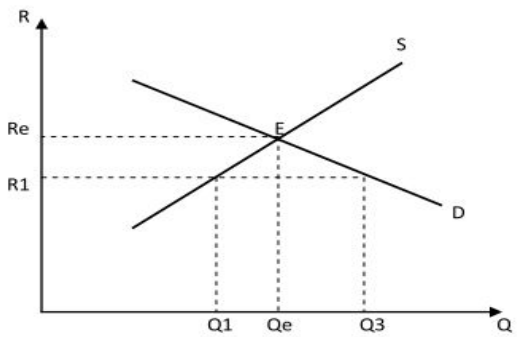
---

8) 鐘鳴, 前揭書, PP.19

3. 융자 곤경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1) 맥밀란 갭(Macmillan gap)

1931년 맥밀란은 영국의 금융제도와 기업에 관해 조사연구한 후에 영국 정부에게 「맥밀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 발전 과정 중에서 융자 갭이 존재하는 것을 논술했다. 즉,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량이 시장 공급량보다 더 많은 것을 나타낸다. 다음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맥밀란 갭

여기서 S는 외부자금의 공급선이고 D는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선이다. E는 자금공급과 수요의 균형점이며, Re와 Qe는 시장실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서 균형 이자율과 대출 공급량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은행은 중소기업에게 높은 대출이자율(Re)을 받을 수 있어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없다. 은행은 시장이자율 수준에 따라 기업에 대한 자금을 제공한다. 이 시장이자율은 대기업에 대한 제공한 이자율 수

준이다. <그림 2-1>에서, R1는 시장이자율이고 중소기업대출 균형이자율보다 낮다. 이 낮은 이자율 수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급한 자금은 Q1, 중소기업의 수요 자금은 Q3이다. 즉, 융자 갭(Q1Q3)이 나타난다.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요 자금 Q1Q3을 제공할 수 없다.

동시에 융자 갭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9] 위험도가 높은 기업은 다른 수단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만 위험도가 낮고 원래 이자율로 대출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더 높은 이자율을 통한 대출자금을 받으라고 강요당한다. 특히 대출 방식은 주로 신용대출 중심으로, 담보대출은 보조적인 상황에서 역선택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시장 왜곡 상황은 심한 결과를 나타난다.

2) 정보 비대칭

정보 비대칭은 사전 비대칭과 사후 비대칭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은 은행과 기업 관계의 경우에 대해 설명하다. 자금조달 시장에서 사전 비대칭은 은행이 대출기업에 대한 경영능력, 경영상황을 잘 파악하지 않으며, 투자 분야의 진실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후 비대칭은 은행이 기업 경영자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를 모르며, 대출 자금의 진실한 사용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의 문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논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하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있다.[10]

일반적으로, 사전 비대칭은 역선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고 업무 특징이 각각 다르므로 특정한 업계에서 지위를 쉽게 평가할 수 없다. 대기업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은 고

9) 李明義·劉景山「談政策性金融對中小企業的融資支持」金融論壇, PP.286-288, 2004.5
10) 이근영, 전게서, PP.115-116

유자산 비율이 낮고, 담보가 부족하고, 재무제표도 건전하지 않고, 신용심사에 불합격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원인으로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 예상하는 대출 위험도가 높아져서 이자율이 증가하게 된다. 만약 금리를 높이는 수단을 쓰면 결과적으로 역선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은행의 대출을 받은 기업은 항상 위험도가 높은 기업이다. 결국, 은행은 전체 기업의 위험도에 비해서 위험이 더 큰 기업들을 선택하여 대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사후 비대칭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도덕적 해이는 "주인"과 "대리인" 간의 문제이다. 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은 위험도가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위험도가 높은 투자안의 경우, 성공하면 수익은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은행과 벤처캐피탈 회사는 다르고 대출할 때 안전성 원칙을 추구한다. 이와 같은 대리인의 위험 선호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3)신용할당 이론(Credit Rationing)

거시 각도에 의하면 신용할당은 이자율이 일정한 경우 금융시장에서 자금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이 있다는 의미이다. 미시 각도에 의하면 신용할당은 첫째, 차입자 중에서 일부 차입자는 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남은 차입자는 자금을 받을 수 없다. 둘째, 차입자가 신청한 자금의 일부만 공급한다는 이론이다(예, 100만 원 신청하면 50만 원만 공급).[11]

신용할당 이론에서, Stiglitz와 Weiss(1981)[12]가 금융시장 정보 비대칭 이론에 기초하여 구축한 이론 모형이 가장 유명하다. 이 모형은 여신 시

11) www.wiki.mbalib.com
12) Stiglitz J. and A. Weiss「Credit Rationing in Markets with Imperfect Information」American Economic Review, PP.390-410, 1981

장 정보 비대칭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은행들은 여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용할당을 실행하는 것을 보여준다.

본 장에서는 정책금융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고, 정책금융의 개념 및 역할,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개념 및 구성, 자금조달 상의 곤경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다루었다. 다음 장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Ⅲ. 중국과 한국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현황 비교

1. 중국 중소기업 자금조달 현황

1) 중소기업 기준 및 일반현황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하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이다. 중소기업을 정의할 때 그 기준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국가마다, 시대마다, 업종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할 때 질적인 기준과 양적인 기준을 사용한다. 질적인 기준은 주로 중소기업의 조직 형태와 자금조달 방식 그리고 업계에서의 지위 등을 포함하지만 단점은 모호성이다. 예를 들면, 1966년에 미국 SBA가 미국 자동차 회사(미국 최대 200개 기업 중의 하나)는 다른 3대 자동차 회사와 비교하면 "소(Small)"회사이기 때문에 소기업으로 정의했다. 양적인 기준은 주로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 자산총액, 매출액의 규모 등을 사용한다.

중국의 경우 「중화 인민 공화국 중소기업 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중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사회 수요를 만족함으로써 고용 창출의 실현과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생산·경영 규모는 중소형에 속한 기업"이라고 정의한다.[13] 중소기업의 분류 기준을 살펴보면 1952년부터 지금까지 여섯 단계가 있다. 현재 중국 중소기업 분류 기준은 2011년 공신부가 공포한 「중소기업 표준 규정」[14]이다. 중국 중소기업의 분류는 다음 <표 3-1>과 같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이 기준에 근거)

---

13) 劉合生「政府促進中小企業發展政策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 PP.9-10, 2012.10
14) 工信部〔2011〕300号

<표 3-1> 중국 중소기업의 분류

분야	기준	단위	대형기업	중형기업	소형기업	초소형기업
공업	종업원 수	인	≥1000	300-1000	20-300	<20
	매출액	만 위안	≥4000	2000-4000	300-2000	<300
건축업	매출액	만 위안	≥8000	6000-8000	300-6000	<300
	자산총액	만 위안	≥80000	5000-80000	300-5000	<300
도매업	종업원 수	인	≥200	20-200	5-20	<5
	매출액	만 위안	≥40000	5000-40000	1000-5000	<1000
소매업	종업원 수	인	≥300	50-300	10-50	<10
	매출액	만 위안	≥20000	500-20000	100-500	<100
교통운송업	종업원 수	인	≥1000	300-1000	20-300	<20
	매출액	만 위안	≥30000	3000-30000	200-3000	<200
우정업	종업원 수	인	≥1000	300-1000	20-300	<20
	매출액	만 위안	≥30000	2000-30000	100-2000	<100
숙박 및 음식업	종업원 수	인	≥300	100-300	10-100	<10
	매출액	만 위안	≥10000	2000-10000	100-2000	<100
창고업	종업원 수	인	≥200	100-200	20-100	<20
	매출액	만 위안	≥30000	1000-30000	100-1000	<100
부동산 개발 경영업	자산총액	억 위안	≥1	0.5-1	0.2-0.5	<0.2
	매출액	억 위안	≥20	0.1-20	0.01-0.1	<0.01
주택관리	종업원 수	인	≥1000	300-1000	100-300	<100
	매출액	만 위안	≥5000	1000-5000	500-1000	<500
스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업	종업원 수	인	≥300	100-300	10-100	<10
	매출액	만 위안	≥10000	1000-10000	50-1000	<50

분야	기준	단위	대형기업	중형기업	소형기업	초소형기업
농,임,목축,어업	매출액	만 위안	≥20000	500-20000	50-500	<50
정보전송업	종업원 수	인	≥2000	100-2000	10-100	<10
	매출액	억 위안	≥10	0.1-10	0.01-0.1	<0.01
기타 업종	종업원 수	인	≥300	100-300	10-100	<10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tjgz/tjdt/201107/t20110712_17567.html)

개혁개방 이후 37년간 중국 중소기업들은 개혁개방 초기 100개에서 이제 4,200만개 (규모 이상과 규모 이하 중소기업 포함)에 달하여 전국 기업 총수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중국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상의 지위는 다음 <표 3-2>와 같다.

<표 3-2> 중국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상의 지위(2013년)

사업체 수	중소기업 수 비율	GDP기여율	국세 기여율	수출무역총액 율	신규 고용비율 (도시기준)
4200만개	99%	58.5%	52.2%	68.3%	80%

자료: http://news.cnfol.com/guoneicaijing/20131230/16612686.shtml

중국 중소기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은 사영기업으로 전체 사업체 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다.[15] 사영기업은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중국 중소기업에는 지역 간 발전 불균형의 문제가 존재한다. 2011년 기준 동부, 중부의 중소기업 수는 전체 중소기업 사업체 수의 42%, 42%를 차지하지만, 서부는 16%를 차지한다. 동부 중소기업의 공업 총생산액은 66%를 차지하고 중부, 서부는 각각 26%, 8%를 차지한다.[16] 중국의 중소기업이 사회·경제발전에 미치는

15) 「中國中小企業年鑒」 PP.63, 2012

영향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원동력 : 1990년 이후 중국 중소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70% 이상의 신규 공업 생산액을 창출했다. 2013년 12월 기준 규모 이상[17] 중소 공업기업 영업수입은 전체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60.2%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총액, 조세 부담, 수출총액은 각각 52.0%, 48.9%, 42.9%로 나타났다.[18] 농촌의 경제발전 또한 중소기업에 의존한다.

나. 중국 경제 체계의 개혁 : 개혁개방 이후 중국기업의 개혁은 중소기업에서부터 실험한다. 중소기업의 급속한 성장은 시장경제에 대한 좋은 시장 경쟁 환경을 제공한다.

다. 취업 문제의 해결 : 중국 중소기업은 도시 취업 기회의 80%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농촌 잉여 노동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 과학 기술의 혁신 : 2011년 기준 중국 중소기업은 65% 이상의 발명특허, 75% 이상의 기업혁신, 80% 이상의 신제품 개발을 담당하였다.[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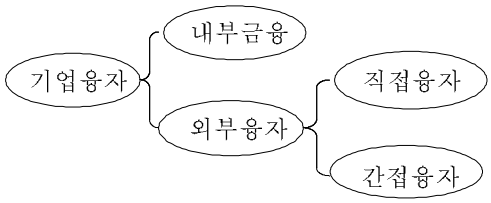
미래 중국 경제의 발전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요인은 중소기업이다. 몇 년 이래 중국정부는 중소기업이 경제 발전 및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지만, 자금조달 상의 애로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

2)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현황

기업의 자금조달 유형에 따른 분류는 다음 <그림 3-1>과 같다.

---

16) 劉合生, 前揭書, PP.10-13
17) 년 영업수입은 2000만 위안 이상의 중소기업
18) 「中國中小企業年鑒」 PP.65, 2014
19) 「深圳特區報」 http;//sztqb.sznews.com/html/2012-06/23/content_2097186.htm



<그림 3-1>

자금공급 부족은 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중소기업 자신의 문제를 보면, 낮은 신용도 및 고유자산비율, 재무제표의 불완전 등의 문제를 존재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중소기업은 수출의 감소,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인민폐의 절상 등 다양한 문제를 겪은 동시에 자금공급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가.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금융기관이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중소기업 창립 초기 필요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조달하지만 기업의 발전에 따라 개인적인 조달은 기업 필요한 자금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외부로 통한 지금조달은 점점 증가해야 한다. 간접금융에서 은행 대출 의존도는 높은 편이다. 중국 은행업 대출 비율은 간접금융의 70%를 초과한다.[20] 2008년 연간 중소기업 신규 대출은 1.22조 위안[21]이고 전년 중소기업대출 대비 13.4% 상승하였지만 전체 기업 대출 증가율(15.2%)보다 작았다. 중소기업대출이 차지하는 전체 대출의 비중은 2008년 30%에서 2014년 39.9%로 확대되었지만 대출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20) 宋明, 劉斯文「我國中小企業融資問題研究」商業經濟, PP.81-82, 2013.8
21) 「中國銀行業監督管理委員會年鑒」PP.32-54, 2009

추이는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추이

년	중소기업대출		전체 대출		중소기업대출의 비중
	잔액 (조 위안)	증가율(%)	잔액 (조 위안)	증가율(%)	비중(%)
2008	10.31	13.4	34.36	15.2	30
2009	13.68	32.7	39.35	14.5	34.76
2010	17.68	29.2	47.31	20.2	37.37
2011	21.77	23.1	54.79	15.8	39.73
2012	25.32	16.31	62.99	15	40.2
2013	28.17	11.26	71.9	14.1	39.18
2014	32.56	15.58	81.68	13.6	39.9

자료:「中國銀行業監督管理委員會年鑒」에서 재편·가공, 2008-2015

2014년 중소기업은 전체 대출기업 수량의 99.5%에 달하지만 기업 대출 총액의 64%를 차지하였다.[22] 중소기업대출은 다음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은행의 여신제도[23] 강화에 따른 단기 위주의 중소기업대출 : 은행은 대출할 때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원칙을 지킨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여신제도는 강화되고, 2009년 기준 중국 14개 상업은행 여신규모 4.52조 위안 대비 중소기업 여신규모는 총규모의 1/23을 차지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은 말단은행이 있는 시, 현에서 분포하고 대출금 대부분은 단기 소액자금이다. 중국공상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50% 이상의 중소기업대출 만기는 0.5-1년이고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은 37만 위안이었다. 반면 대기업은 평균 3,516만 위안으로 나타났다.[24]

둘째, 중소기업대출 높은 부실률 : 2008년 중소기업대출 부실률은 5.9%이었다, 2009년 이후 부실률이 계속 하락하여 2012년 중소기업대출 부실

22) 宋建玲「小額貸款公司助力中小企業發展研究」合作經濟与科技, PP.44-45, 2016.1
23) 말단은행기관은 공정자산 대출한 권리가 없고 규모가 작은 유동 자금의 대출 권만 있다.
24) 呂品「商業銀行對中小企業融資問題研究」首都經貿大學, 碩士學位論文, PP.11, 2012.2

률은 3.3%이지만 전체 은행대출 부실률(0.95%)보다 높은 편이었다.[25]

셋째, 대출 분포 불균형 : 대형 상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자금이 가장 많지만 전체 기업대출의 45.1%를 차지하였다. 12개 주식제 상업은행,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49.8%, 71.2%, 94.3%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규모가 작질수록 오히려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표 3-4> 중소기업대출 비중

항목	중소기업대출 잔액 (조 위안)	기업대출의 비중(%)
상업은행	10.31	52.02
대형 상업은행	4.25	45.07
주식제 상업은행	1.58	49.83
도시 상업은행	1.01	71.16
농촌 상업은행	1.56	94.30

자료: 「中國銀行業監督管理委員會年鑒」PP.54, 2009

넷째, 중소기업대출 차별화 :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대출은 신용 대출에서 담보 대출로 바뀌었다. 2011년 기준 34.62%의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기 때문에 차입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6] 그리고 대출심사도 기업의 재무상황 및 신용기록을 중시하여 수익성이 좋고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대출에 편중 현상을 나타낸다. 한편 중국의 60% 이상의 중소기업들은 신용등급이 BBB나 BBB 이하 등급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은행 신규대출 대상의 80% 이상은 AAA나 AA 등급의 기업이다.[27] 동시에 국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편중 현상을 나타낸다.

다섯째, 대기업과 금리 차별화 :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은 중소기업들의 신용 부족으로 높은 금리를 요구한다. 중소기업이 차입한 금리는 기준금

25) 「中國銀行業監督管理委員會年鑒」에서 재편·가공, 2009-2013
26) 蔣平「中國中小企業融資担保制度問題研究」西南財經大學, 博士學位論文, PP.27, 2011.4
27) 賈芳「中國中小企業融資困境分析」中國鄉鎮企業會計, PP.49-50, 2010.5

리보다 10%-20%나 증가한다. 2009년 55.97%의 중소기업이 높은 금리 때문에 대출 신청하지 않은 상황으로 조사되었다.[28]

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중국 중소기업 직접금융사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주로 주식, 채권을 사용한다. 중국 벤처캐피탈의 규모는 작다.

첫째, 주식 발행 : 중소기업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주로 창업판 및 중소기업판에 의존한다. 2015년 11월 기준 중소기업판에서 상장(IPO)한 기업은 774개이고 발행주식 수는 4,720억개이다. 창업판에서 상장한 기업은 489개이고 발행주식 수는 1,805억개이다. 2007년 이후 상장된 기업 수량은 계속 증가하지만 증가 수량은 점차 감소하였다. 특히 2013년 신규 상장된 기업은 0개이다.

<표 3-5> 상장한 중소기업 수량 **(단위:개)**

년	중소기업판에서 상장 기업 수량	창업판에서 상장 기업 수량
2007	202	-
2008	273	-
2009	327	36
2010	531	153
2011	646	281
2012	701	355
2013	701	355
2014	732	406
2015	774	489

자료: 深圳証券交易所에서 재편·가공, 2007-2015

한편, 2개 시장에서 상장 기준이 거래소시장보다 낮다고는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힘들다. 두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28) 蔣平, 前揭書, PP.27

1,263개이지만 4,200만개 중소기업에 대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둘째, 채권 발행 : 중국 중소기업은 주로 집합채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을 조달한다. 집합채권은 지방정부 주도하여 지역 내에서 몇 개 중소기업을 집합하고 발행한 회사채이다.[29] 2013년 기준 중국은 13개 집합채권을 발행하고 사모 자금은 52.02억 위안에 달했다. 한편 중소기업 집합채권의 조달 비용은 계속 오르고 2011년 금리는 5.03%에서 2013년 7.6%로 상승하였다.[30] 또한 중소기업 집합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담보기관의 보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소기업 집합채권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셋째, 벤처투자 : 벤처투자는 창의·기술에 기초하여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신흥기업에 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말이다. 2014년 기준 중국 벤처투자회사는 200개가 있고 규모가 한국보다 작다. 그리고 벤처투자는 주로 벤처투자펀드의 형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활성화하지 않는다.[31] 한편, 벤처 메커니즘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회수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을 통한 자금조달

그림자 금융은 은행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활동이다.[32] 2010년에 중국정부는 경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축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은행의 대기업대출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그림자 금융의 탄생은 중소기업 자금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은행과 신탁 회사의 합작, 소액 대출 회사, 민간 융자 등은 대표적인 그림자

---

29) 劉合生, 前揭書, PP.99-113
30) http://finance.sina.com.cn/money/bond/20130802/022616320143.shtml
31) 정경위「중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에 대한 연구」한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7, 2014.2
32) 「중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PP.103

금융 상품이다.

2012년 12월 기준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는 20.5조 위안으로 전체 은행 대출의 33%,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했다.[33] 2014년 기준 그림자 금융 규모는 27조 위안에 달했다. 다음 <표 3-6>은 중국 그림자 금융 규모의 추산이다.

<표 3-6> 중국 그림자 금융 규모의 추산

업무 주체	분류		규모 (조 위안)	비중 (%)	비고
은행	은행 자산 관리 상품	은행과 신탁 회사의 합작	2.19	14.59	2013.12
		은행과 증권 회사의 합작	0.3		2012.12
		은행과 증권, 신탁 회사의 합작	0.96		2013.12
	미 할인 인수 어음		0.78	3.3	2013.12
	위탁 대출		2.55	10.79	2014.12
비은행 금융기관	신탁상품		7.76	32.83	2012.12
	집합 자산관리 계획		1.89	7.99	2012.12
	융자 담보 회사		1.6	6.77	2013.6
	소액 대출 회사		0.82	3.47	2013.12
	전당포 업		0.29	1.23	2013.11
비 금융기관	사모 기금		0.5	2.12	2012.12
	민간 융자		4	16.92	2012.12

자료: 中國人民銀行,信托協會,銀行業監督管理委員會에서 재편·가공

중국 은행업에서 그림자 금융의 규모는 6.78조 위안에 달했다. 그중에서 은행과 신탁회사의 합작은 대표적인 그림자 금융 상품이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신탁상품이 32.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민간융자이다. 민간 융자는 가장 활발한 그림자 금융 상품이다. 민간 융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많은 자금을 제공할 수 있지만 금리가 높다. 다음 <표 3-7>은 중소기업 민간 융자의 금리이다.

33) 龍建成, 樊曉靜, 張雄「利率變動, 影子銀行与中小企業融資」金融論壇, PP.40-42, 2013.7

<표 3-7> 중소기업의 민간 융자 금리

기관	금리(%)
도시 상업은행의 대출 금리	9
친척이나 관계형기업의 빌은 금리	12-15
정규 소액 대출 회사	18
담보회사	18-24
전당포	36.5-182.5
비정규 소액 대출	146-182

자료: 「第一財經日報 」2011.7.6

한편 최근 은행에서 자금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P2P 대출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P2P 대출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의 대출을 말한다.[34] 2015년말 기준 중국에서 P2P 방식을 통한 대출금액은 9,823억 위안으로 2014년 2,528억 위안 대비 3배 증가하였다. P2P 대출업체 수는 2013년 800개에서 2015년 2,595개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P2P 대출의 발달에는 온라인 신용평가 시스템의 불건전, 거래 규제 불분명 등의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

2. 한국 중소기업 자금조달 현황

1) 중소기업 기준 및 일반현황

한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분류는 1961년에 처음 제정되고 총자산 및 근로자 수에 따라 분류했다. 현재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분류 기준은 다음 <표 3-8> <표 3-9>와 같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이 기준에 근거).

34) 「조선경제」 2016.4.6

<표 3-8> 한국 중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기준 (2014.4.14)

업 종	규모 기준
1. 가방, 가죽 및 신발 제조업 2. 의복액세서리, 의복, 모피제품 제조업 3. 1차 금속 제조업 4. 가구 제조업 5. 전기장비 제조업 6. 종이,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500억 원 이하
7. 화학제품 제조업 및 화학물질(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8. 식료품 제조업 9. 광업 10. 담배 제조업 11. 나무제품 제조업 및 목재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2. 어업, 임업 및 농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14. 석유정제품 제조업, 연탄 및 코크스	평균매출액등 1000억 원 이하
15. 건설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7. 도매 및 소매업 18. 장비 제조업 및 그 밖의 기계 19.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및 고무제품 20. 가스, 전기, 증기 및 수도사업 21. 음향, 전자부품, 영상, 통신장비 제조업 및 컴퓨터 2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000억 원 이하
24. 그 밖의 제품 원조업 2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6. 의약품 제조업 및 의료용 물질 27. 영상, 방송통신, 출판, 정보서비스업 28. 기록매체 복제업 및 인쇄 29. 원료재생,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30. 음료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800억 원 이하

업종	규모 기준
31. 운수업 32. 의료, 광학기기, 정밀 및 시계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800억 원 이하
3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5.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6. 과학, 전문 및 기술 서비스업 37. 스포츠,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평균매출액등 600억 원 이하
38. 교육 서비스업 39. 숙박 및 음식점업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41. 금융 및 보험업	평균매출액등 400억 원 이하

자료:「중소기업 기본법」제3조 제1항 제1호

<표 3-9> 한국 중소기업 주된 업종별 규모기준 (2011.12.28)

업 종	소기업	중기업
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50인 미만	50인-299인
영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서비스업 및 과학 , 사회복지 서비스업 및 보건업, 정보서비스업 및 방송통신, 출판	50인 미만	50인-299인
도매 및 소매업, 전기, 가스,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 증기 및 수도사업, 예술, 금융 및 보험업,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10인 미만	10인-199인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하수·폐기물 처리,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10인 미만	10인-99인
부동산업과 임대업	10인 미만	10인-49인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5중소기업현황」PP.32, 2015.5

OECD 국가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비중은 높은 편이다. 중소기업은 한국 산업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정화의 촉진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3년 한국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량의 99.9%에 해당하였다.[35)]

기업 규모로 세분하면 중소기업 중에서 소상공인은 전체 중소기업 사업체 수의 86.6%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사업체 수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전체 중소기업 사업체 수의 27.9%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종사자 수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제조업으로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수의 22.6%를 차지했다.[36] 중국과 마찬가지로 종사자는 노동 집약적 제조업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이 사회·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가. 일자리의 창출 : 한국은 국토 면적이 작고 인구가 많은 나라이고 취업문제는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인데 중소기업은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013년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전체 기업 고용의 87.5%에 달했다. 중소기업인 덕분에 한국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한다.

나. 수출의 확대 : 한국에서 80%의 중소제조업은 도급제 기업이다.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부속품은 품질이 좋고 원가가 낮아서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전자제품, 자동차는 국제 시장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필요한 부속품은 중소기업에서 가공하고, 동시에 중소기업은 선진적인 생산 지식과 경영 방식을 배울 수 있다. 2010년 중소기업 자신 제품의 수출액은 수출총액의 31.1%로 2008년 대비 1.5% 상승하였다.[37]

다. 과학기술 발전의 촉진 : 중소기업의 수량은 많지만, 미래 발전 공간은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 간에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기술을 제고하면 생존할 수 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 한국정부는 산업 구조를 조정하고 노동·자본 집약적 산업이 기술·지식 집약적 산업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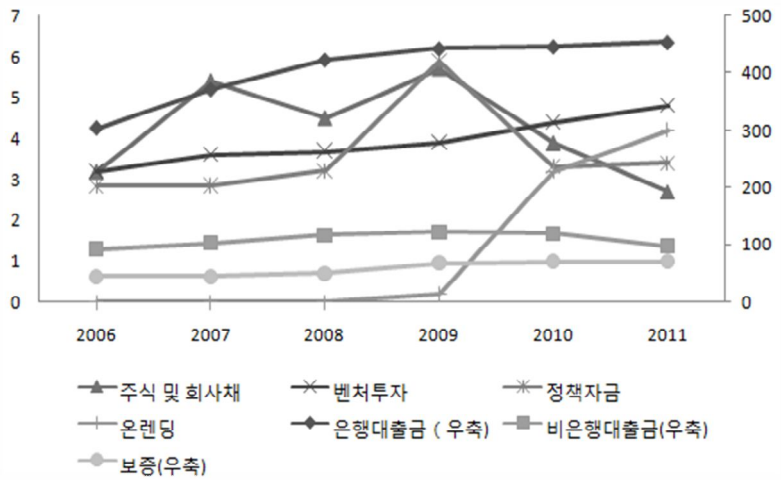
35) 중소기업중앙회, 전게서, PP.36, PP.183
36) 상게서, PP.36
37) 「한국 통계 월보」 2011.12

되고 혁신형 기업의 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중소기업의 경영규모는 작고 유연하므로 과학기술이 선진 생산력으로 전환되기 쉽다.

2)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현황

중국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한국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추이는 <그림 3-2>과 같다. 2012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류 기준을 변경하기 때문에 2011년 이후 데이터는 연속성이 없다.

(단위: 조 원)



자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벤처투자(주), 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청 등에서 재편·가공

<그림 3-2> 한국 중소기업 자금조달 추이

가.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한국에서 간접금융은 은행대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2014년 12월 기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510.6조 원으로 전체 간접금융의 80%를 초과하였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86.7%에서 2014년 74.1%로 축소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현황은 다음 <표 3-10>과 같다.

<표 3-10>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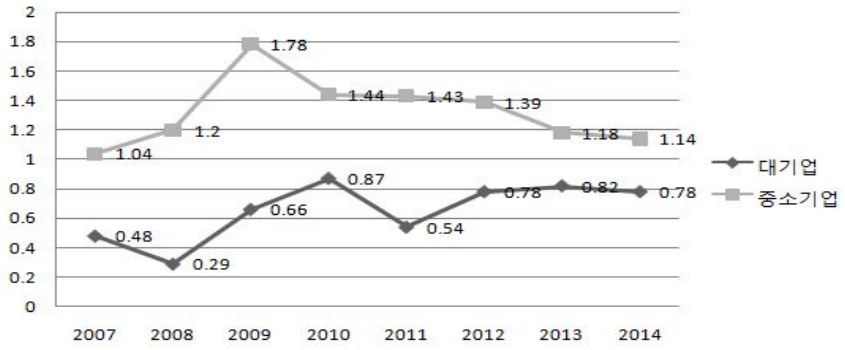
년	중소기업대출		전체 기업 대출		중소기업대출의 비중
	잔액 (조 원)	증가율(%)	잔액 (조 원)	증가율(%)	비중(%)
2007	371.7	22.6	428.6	24.6	86.7
2008	423.4	13.9	514.7	20.1	82.3
2009	443.5	4.7	533.9	3.7	83.1
2010	447.0	0.8	545.7	2.2	81.9
2011	454.7	1.7	575.2	5.4	79.1
2012	460.8	1.3	616.3	7.1	74.8
2013	478.8	3.9	649.0	5.3	73.8
2014	510.6	6.6	688.7	6.1	74.1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5중소기업현황」PP.274. 2015.5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대기업보다 작다. 중소기업대출은 다음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높다 : 2008년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2%로 2009년 이후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하락하지만, 대기업대출 연체율보다 여전히 높은 추세이다.

(단위:%)



자료: 한국은행 「2014년도 연차보고서」 PP.40, 2015.3

<그림 3-3> 은행의 기업 대출 연체율 추이

둘째, 중소기업대출 차별화 :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 지수는 보수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적극성이 부족한 현상을 나타낸다.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할 때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기업대출 편중 현상을 나타낸다.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신용등급이 1-5등급에 대한 대출 잔액은 전체 대출 잔액의 53.7%를 차지했지만 7등급 이하 대출 잔액은 26.4%를 차지했다.[38] 그리고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으면 자금을 차입하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난다. 중소기업 담보 대출의 비중이 2008년 50%에서 2013년 58%로 증가하였다.[39]

셋째, 대기업과 금리 차별화: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차입 금리 격차가 확대하는 추세이다. 2008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입 금리는 각각 6.75%, 6.91%이고 격차는 0.16%이었다. 그런데 2012년 격차는 0.48%이고 2014년 격차는 0.5%에 달했다.[40]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대기업과 금리 격차는 크게 확대했다.

---

38) 구정한, 김연도, 이시연「국내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와 효과 분석」한국금융연구원, PP.14-15, 2015.3

39) 한국은행「금융안정보고서」 PP.11, 2014.4

40) 「중소기업진흥공단연차보고서」PP.11,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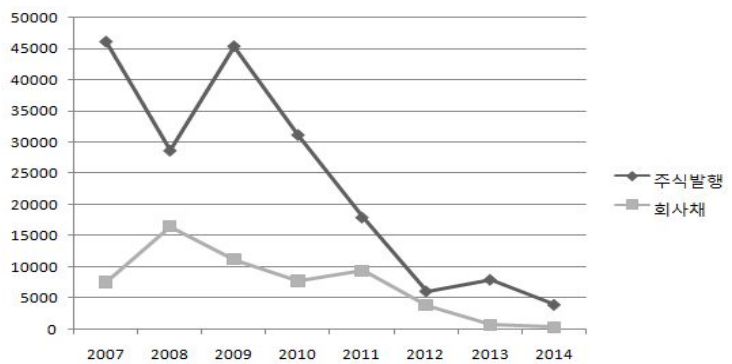
넷째, 단기대출 위주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은 자기 유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출을 단기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2013년 기준 70% 이상의 중소기업대출 만기는 1년 이하이다.[41]

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한국 중소기업 직접금융사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주로 주식, 채권 및 벤처캐피탈이다.

첫째, 주식·회사채 발행 : 중소기업 주식·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미미한 수준이다. 다음 <그림 3-4>를 보면 2009년 이후 주식·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발행은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를 포함하고 회사채 발행은 일반회사채(금융채와 ABS제외)이다.

(단위: 억 원)



자료: 한국벤처투자(주), 금융감독원에서 재편·가공

<그림 3-4> 중소기업의 주식·회사채 발행을 통한 증자금액

41) 한국은행, 전게서, PP.63

한편, 1996년 7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상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서 한국정부는 KOSDAQ 시장을 개설했다. 2009년 기준 KOSDAQ 시장의 거래 총액은 세계 2위가 되었다.[42]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한 중소기업은 2007년 1,022개에서 2015년 1,152개로 상승하였다. 2015년 기준 IPO를 통한 자금조달 금액은 약 2.1조 원으로 전년(1.18조 원) 대비 2배 증가하며 2000년(약 2.6조 원)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43]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2013년 7월 KONEX 시장을 개장했다. 코넥스는 코스닥보다 상장 문턱이 낮다. 2015년 기준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108개로 2013년 개설 당시(21개) 대비 5배 규모로 성장하였다.[44] 2개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341만개 중소기업에 대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둘째, 벤처캐피탈 : 한국의 벤처투자 규모는 중국보다 크다. 2015년 9월 기준 벤처투자 규모가 53,316억 원으로 2008년 대비 2배 규모로 성장하였다.[45]

한편, 벤처캐피탈의 업력별 투자 현황을 보면, 2015년 9월 기준 초기기업 투자금액은 전체투자의 31.3%를 차지하지만 투자한 초기 사업체 수는 4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주가 4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통주(18.9%), 투자사채(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투자 현황을 보면, 서울과 경기지역이 각각 51.6%, 24.5%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이 78.6%를 차지했다.[46]

---

42) 「人民日報」 2009
43) 「2015년 코스닥시장 동향 및 주요 특징」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PP.2, 2015.12.30
44) 「15년 코넥스시장 동향 분석 및 성과평가」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PP.1, 2015.12.29
45)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 PP.34, 2015.3/4
46) 상게서, PP.34-35

3. 비교분석

1) 유사점

첫째, 양국 중소기업은 발전 단계에서 주로 간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간접금융에서 은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은행들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적극성이 부족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높고, 담보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단기유동성 소액 자금 대출 등 편중의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대다수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없는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 차입이 어려워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고, 위험이 높고, 신용도가 낮은 특징이 존재하면서 투자자와 중소기업 간의 정보 비대칭 때문에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중국의 자본시장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한국의 자본시장 보다 뒤늦게 시작하였다. 한국의 자본시장은 중국보다 일찍 발전하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식 및 채권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크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양국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중소기업은 많지 않는다.

2) 차이점

첫째, 중소기업 자금조달에서 한국의 정책자금이 총자금의 15%를 차지하는 반면에 중국은 1% 미만의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47] 한국에서는 정

47) 호쟁「중국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52, 2013.12

부의 정책자금에 높게 의존하고 있어 자기 자금조달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만약 정책자금의 공급을 중단하면 기업은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중국 그림자 금융은 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한 자금조달 경로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자신의 리스크 문제가 존재한다. 대출금의 회수가 어려워서 채무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그림자 금융의 규모는 2011년 기준 1,268조 원으로 규모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향후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로 한다.

셋째, 한국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초기기업 투자 비중은 후발기업에 비해 낮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편중의 현상이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중국의 벤처투자는 주로 벤처투자펀드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자금조달 수단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활발하지 않는다.

Ⅳ.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 및 개선 방안

3장을 살펴보면, 역시 자금조달 상의 애로는 양국 중소기업 발전을 제약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급하는 정책금융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중국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 및 개선 방안

1) 중국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

중국의 중소기업 자금공급 정책은 크게 은행부문의 지원정책, 신용담보체계의 수립 및 정부 설립 기금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은행부문의 지원정책

은행부문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2003년 「중화 인민 공화국 중소기업 촉진법」의 발표에 따라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국무원 영도 소조를 설립하고 중소형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은행은 중소기업대출을 전담하는 금융기관을 설립하였다.[48]

금융위기 이후 중국 국무원은 중소기업 자금조달 상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면, 2009년 「국무원은

48) 강동수·이준엽「중국의 중소기업 금융정책」KDI출판, PP.1-2, 2010

중소기업의 발전에 관한 진일보 촉진 약간 의견」[49](國務院關于進一步促進中小企業發展的若干意見)을 발표하였다. 이 의견에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화 감독·관리정책을 강조하였다. 2009년 「정부 업무보고서」(政府工作報告)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절차의 간편화, 대출규모의 확대, 담보체계의 건립" 등 정책을 제정하였다. 2009년 「정부 경제업무회의」(政府經濟工作會議)에서는 5개 대형 상업은행과 12개 주식제 상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전담하는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중소기업대출의 특징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전문기관의 독립적인 운영을 강조하였다. 2009년 기준 중소기업 전문기관 신규대출은 중소기업 신규대출의 60%-70%를 차지하였다.[50] 2009년 은행관리감독위원회는 "두 개 낮지 않은 목표"[51](兩个不低于)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효과로 인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총액은 계속 증가하였다.

한편, 중국은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및 중국농업개발은행 3개 정책은행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정책은행은 존재하지 않으며, 위의 3개 정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나. 신용담보체계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한 것은 중소기업 자금조달 상의 어려운 점이다. 중소기업 담보기관은 중소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매개 역할을 발휘한다. 중국 중소기업 신용담보 체계는 1999년부터 시작하고 이제까지

---

49) 國務院「2009」36号

50) http://politics.people.com.cn/n/2015/0302/c70731-26621567.html

51) 두 개 낮지 않는 목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의 증가속도와 증가량은 전년보다 낮지 않는 목표를 뜻한다.

담보 체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신용담보, 민간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후조 담보(互助担保) 및 상업 담보로 구분할 수 있다.

신용담보는 주로 중앙정부가 출자한 자금으로 구성되며, 수익목적을 고려하지 않는다. 후조 담보의 자금은 주로 회원 기업의 출자를 통해서 구성되며, 전문적인 보증회사에 위탁하고 회원 기업에 대한 담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업 담보는 이익 극대화 목표를 지키고 개인 출자 위주로 한다. 중국정부는 신용담보를 도시 담보, 성급·국가 재담보 3단계로 운영하고 있다.[52)]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정부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국무원은 중소기업의 발전에 관한 진일보 촉진 약간 의견」(國務院關于進一步促進中小企業發展的若干意見)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체계를 강조하였다.

최근 몇 년간 담보기관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2007년 중소기업 신용 담보기관은 3,729개에서 2009년 5,547개로 증가하였다. 2009년 기준 국유 담보기관은 1,501개이고 전체 담보기관의 27%를 차지하였다. 전국 5,547개 담보기관의 담보 총액은 3,389억 위안이고 2008년 대비 1,055억 위안 증가하였다. 그중에서 정책자금은 866.5억 위안으로 담보자금의 25.5%를 차지하고 2007년 대비 251억 위안 증가하였다.[53)]

2013년 기준 담보기관은 8,185개에 달한다. 2007년 보증잔액은 1.35조 위안에서 2013년 2.57조 위안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2013년 담보기관과 합작한 은행은 15,807개이고 담보대출 금액은 1.69조 위안으로 중소기업 대출 28.17조 위안 대비 6%를 차지했다.

2010년 중국 재담보기관은 14개로 담보기관 4,817개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공신부 통계에 따르면 14개 재담보기관 중에서 12개는 국유자본

52) http://www.smeyn.gov.cn/Mode001/Info_Detail.aspx?ID=67427
53) 「全國中小企業信用担保發展報告」에서 재편·가공, 2008-2015

에 의하여 설립되었다.[54] 중국 담보체계는 정책 담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담보도 존재한다. 후조 담보 및 상업 담보는 많은 수량이 있지만 규모가 작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차입한 비용이 높고, 위험관리능력이 약해서 은행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은 담보기관에 100% 담보책임을 요구한다.

다. 펀드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정부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전문 기금을 설립하였다. 「중화 인민 공화국 중소기업 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국(中小企業廳)에서 담당하는 중소기업 발전 기금, 과학기술부(科學技術部)에서 담당하는 과학형 중소기업기금, 상무부(商務部)에서 담당하는 국제시장 개발 기금, 농업부(農業部)에서 담당하는 농산품 가공 전문 부조기금 등 다양한 기금을 설립하였다. 한편 지방정부도 각 성, 시의 특색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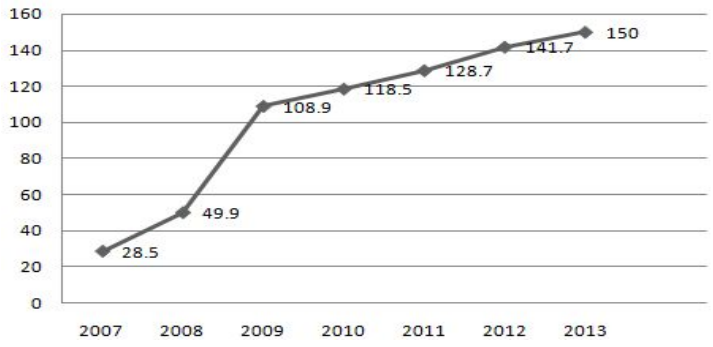
금융위기 이후 중앙 재정은 중소기업 펀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2008년 지원한 자금은 49.9억 위안이고 2007년 대비 75% 상승하였다. 2009년 지원한 자금은 크게 증가하여 108.9억 위안에 달했다. 2013년 기준 지원한 자금은 150억 위안에 달하고 2007년 대비 5배 규모로 성장하였다. 정부의 연도별 펀드 출자현황은 다음 <그림 4-1>과 같다.

그런데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은 중국의 정책 자금은 무상원조 성격인 반면 한국의 정책 자금은 은행에 위탁하고 은행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해 심사한다.

---

54) 上揭書

(단위: 억 위안)



자료:「중소기업 연감」에서 재편·가공, 2008-2014

<그림 4-1> 연도별 정부 출자현황

2) 중국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의 개선 방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몇 년간 중국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지만 한국보다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경험을 참고하면서 중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중국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발전은 다음 몇 가지의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가. 법률의 제정

개혁개방 이후 정부는 주로 대형 국유기업의 발전을 지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현행 「중화 인민 공화국 중소기업 촉진법」은 2급 법이고 중소기업에 관한 보호법, 담보법 등의 법률이 없다. 정책 대부분은 "의견(意見)"하고 "통지(通知)"의 형식으로 발표해서 집행력이 부족하다.

한국의 경험을 참고하고, 경제발전의 단계대로 적당한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 한편, 전국적인 정부기관(예: 중소기업청)을 성립해야 한다. 이러한

기관은 중소기업에 관한 기술, 정보, 관리 등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정책은행의 설립

중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주로 대형 상업은행, 주식제 상업은행, 도시 상업은행에 의존한다. 다양한 정책 때문에 상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은 계속 증가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 특히 소형기업의 자금조달 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 조사에 의하면, 규모 이상 공업기업에서 대형, 중형, 소형기업의 대출 만족도는 각각 100%, 90%, 20% 이는 반면 규모 이하 공업기업의 대출 만족도는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55]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려면 중소기업 정책은행을 설립해야 한다. 다음 몇 가지는 중소기업 전문은행의 설립할 때 고려한 방안이다.

첫째, 중소기업 전문은행의 업무대상은 중소기업이지만 대출할 때 국가 발전전략 및 산업정책도 고려해야 한다.[56] 예를 들면,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창업 초기와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적인 지원한다. 동시에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전문은행의 경영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 전문은행 설립 초기 자금은 주로 정부투입에 의존하지만 후속 자금은 인민은행(중앙은행)의 대출, 해외채권의 발행, 차입금 등에 의존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전문은행의 대출은 크게 두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일반대출 및 특수대출이다. 일반대출은 단기 유동성 자금 위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특수대출은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후자는 장기적인 저금리 대출금이다. 동시에

55) 강동수·이준엽, 전게서, PP.2
56) 李明義,劉景山, 前揭書, PP.286-288

대출할 때 고려할 요소는 국유기업 여부가 아니고 기업의 신용도, 경영 효과, 재무 상태, 담보 능력 등이다.

넷째, 현존 정책은행과 서로 조화해야 한다. 각각 정책은행들은 명확히 분업해야 한다. 국가개발은행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이다. 수출입은행은 상품수출입, 대외투자 등 국가무역 정책지원이 주목적이다. 농업발전은행은 3농 지원, 농촌기반시설 대출지원 등이 주요 업무이다.[57] 그리고, 중소기업 전문은행은 자금조달 상의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주목적이다.

다섯째, 중소기업 전문은행은 정부 정책적인 의도와 국가 장기적인 발전 목표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중소기업이 상업은행을 통한 충분한 자금을 받을 수 있으면 중소기업 전문은행은 퇴장해야 한다.

다. 특혜 정책의 지원

한국처럼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이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소기업 대출비율이 높은 은행에게 특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라. 담보정책의 건전

중소기업 담보기관의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이 담보부족 상황을 완화할 수 있지만 담보기관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 앞으로 담보체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다음 몇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57) 「중국의 금융제도」 전게서, PP.93-94

첫째, 담보 법률의 제정 : 1995년에서 「담보법」을 공포했지만 이 법은 신용담보기관의 업무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담보행위에 관한 규정만을 포함한다. 특정한 법률을 통해서 담보기관의 지위를 확정해야 한다.

둘째, 자금 재원의 다양화 : 중국 신용담보기관의 자금공급은 대부분 정부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부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담보기관의 확대를 제한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담보기금은 상업은행이 참여하고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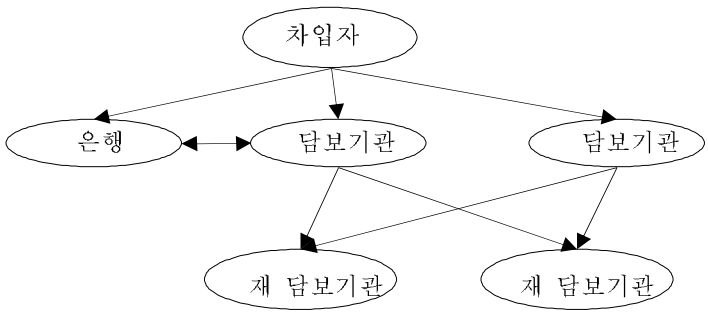
셋째, 위험 보상 기관의 설립 : 2015년 기준 중국 담보기관의 평균 자산총액은 1.07억 위안이고 대부분 자산총액 규모는 5,000만 위안 이하에 있다. 평균 담보 잔액은 3.14억 위안으로 평균 자산총액의 3배에 달했다.[58] 2010년 2.3배 대비 상승하지만 10배 기대치에 비해 낮고 담보업무의 효율성이 낮다. 한편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해 신뢰할 수 없고 대다수 담보기관은 100%의 위험을 담당하고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산할 수 없다. 동시에 정부는 담보기관에 대한 자금을 주로 일회성으로 투입하고 추가금 및 위험 보상금의 투입 체계가 없다.

이런 상황을 완화하려면 정부는 매년 일정 비율의 자금을 통해서 담보기관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한편, 상업은행과 담보기관 간의 위험분담 메커니즘을 설립해야 한다. 상업은행이 일부분 대출 위험을 담당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감시책임을 잘 질 수 있다. 그런데 분담비율이 너무 높으면 은행의 위험이 증가한다. 각국의 법률에 따라 분담비율의 차이가 있다. 한국의 분담비율은 70%-80%, 미국은 75%-90%, 독일은 60%-80%, 일본은 70%-80%이다. 위에 자료에 따라 70%-80%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분담 비율이다.

---

58) http://www.cet.com.cn/xwpd/gnxw/1477348.shtml

넷째, 위험 재분담 : 은행과 담보기관 간의 위험분담 메커니즘을 설립해도 대부분 위험은 담보기관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담보기관의 장기적인 안정 운영을 위해서 담보기관과 담보기관 간에서 위험을 재분담해야 한다. 즉 몇 개 담보기관의 합작을 통해서 대출 보증을 시행해야 한다. 신용담보 분산체계는 다음 <그림 4-2>과 같다.



<그림 4-2> 신용담보 분산체계

다섯째, 전국적인 담보기금의 설립 : 중국은 담보기관이 많지만 규모가 작고 지역 분포의 불균형 때문에 중소기업은 담보지원을 평등하게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정부와 상업은행 공동 출자로 전국적인 담보기금을 설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담보자금의 원천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담보능력은 은행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마.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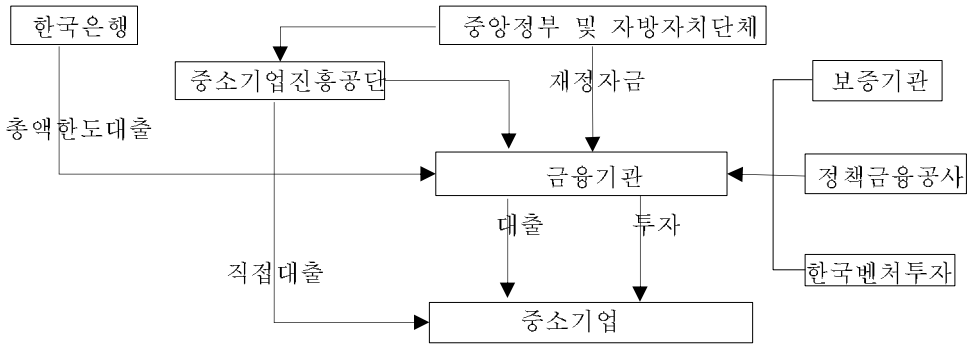
다음 2개 펀드를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개발 펀드는 일정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투자 펀드는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혁신형 기업 및 신흥 산업에 대해 지원한다.

한편, 기금은 기업에 대한 무상적인 투입을 줄여야 한다.

2. 한국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 및 개선 방안

1) 한국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

3장의 <그림 3-2>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을 급격히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한국정부는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12조원 신규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한 300억 달러를 지원했다. 2008년 11월 정부는 신용보증기관과 중소기업은행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해 20조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2009년 정부는 만기도래한 보증지원에 대해 만기 연장하였다. 한국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는 주로 다음 <그림 4-3>와 같다.



자료: 구본성「중소기업금융의 새로운 방향과 중장기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PP.4, 2013.1.29
<그림 4-3> 현행 정책금융체계

정부는 보증제도, 정책금융기관, 재정자금, 모태펀드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가. 대출지원

첫째, 한국은행의 금융 중개지원 대출(구. 총액한도대출) : 총액한도대출 제도는 한국은행이 은행에게 대출한 자금의 총 한도를 미리 정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은행별로 저리 자금을 배분하는 제도이다.[59]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를 크게 확대하였으며 2010년부터 그 한도를 축소하는 추세이다. 2013년 한도를 2012년 9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확대하였다. 2015년 대출한도는 20조 원에 달했다. 그리고 2008년간 금리는 2% 하락하였고 2015년 금리는 연 0.5%-0.75%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2015년 기준 금융 중개 지원 대출은 5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용되고 있다. 다음<표 4-1>과 같다.

<표 4-1> 금융 중개 지원대출 프로그램별 구성 내역(2015년)

구분	도입시기	한도(조 원)	금리(%)	지원 목적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1994년3월	1.5	0.75	수출금융 지원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1994년3월	5.9	0.75	지방중소기업 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	2012년11월	0.5	0.5	영세자영업자 고금리부담 경감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2013년6월	5.0	0.5	우수기술 보유 창업기업 지원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2014년9월	7.0	0.75	신규 설비투자 지원

자료: 한국은행 (http://www.bok.or.kr/broadcast.action?menuNaviId=1933)

한정된 자금을 중소기업에 대해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중소기업대출 의무 비율 제도가 지속적으로 실시되다. 시중은행은 원화대출금 증가액 45% 이상, 기업은행은 80% 이상, 지방은행은 60% 이상, 외국은행은 35%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59) 한국은행, http://www.bok.or.kr/broadcast.action?menuNaviId=1933

둘째, 기업은행의 대출: 기업은행은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인을 위해 설립된 정책은행이다. IBK는 중소기업대출이 전체 대출의 85%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대출 금리도 일반은행보다 낮다. 금융위기 이후 IBK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는 238.7조 원으로 2008년 대비 33.9% 증가하였으며 동기 전체 상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율 4.7%보다 크다.[60]

셋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간접 지원: 1979년「중소기업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중진공은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촉진에 설립목적이 있다. 중소기업에 관한 창업, 기술, 인재, 경영, 정보 등 분야에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금의 지원도 있다. SBC는 자금을 신청한 기업의 평가를 통해 지원한 기업을 결정한 후에 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2009년 중소기업에 대한 직·간접 지원은 4.8조 원이고 2008년 2.6조 원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SBC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에서 2009년 11,500억 원으로 2007년 6,200억 원 대비 85% 증가하였고 2014년 1.34조 원에 달했다.[61]

넷째, 정책금융공사의 On-lending과 직접대출 : 2009년 10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성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는 2015년 1월 1일 한국산업은행으로 합병되었다. 온렌딩은 정책금융공사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은행에 제공하고 은행은 지원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한 제도이다. 은행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 기업, 기업 표준 신용등급 15등급 중 6-11등급에 해당하며, 회사 설립 후 3년 이상이고 직전 사업년도 매출 실직이 10억 원 이상인 기업이다. 2014년 6월 기준 온렌딩 지원에서 8등급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59.4%를 차지했다.[62] 또한, 온렌딩 대출에 대한

60) 張美華「韓國中小企業政策性金融体系及我國的比較与借鑒」中國鄉鎮企業會計, PP.50-51, 2010.6
61) 「201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차보고서」PP.19
62) 박병석「시중은행에서 자금융통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 아닌 "신용등급 상대적 우량 중소기업에서 집중 대출" 확대돼」에서 재편·가공, 2014.10.21

신용위험분담제도를 운용한다. 다음 <표 4-2>는 온렌딩 지원조건이다.

<표 4-2> 온렌딩 지원조건

기업규모	대출한도	신용위험분담비율
중소	시설: 50억 원/운전: 20억 원 (기업별: 100억 원)	50%이내(지방중소기업 60%이내)
중견	시설: 250억 원/운전: 100억 원 (기업별: 500억 원)	분담없음

자료: 정책금융공사 지식백과(http://blog.naver.com/downstone2/50189563056)

정책금융공사의 직접대출 지원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2012년 기준 정책금융공사 대출총액의 5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냈다.[63]

나. 담보지원

한국은 아시아에서 두번째 신용담보 체계를 설립한 나라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부족한 담보 및 신용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 신용보증기관을 설립했다. 정부는 담보기관 간의 중복된 업무를 피하고자 각각 일반 중소기업,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금은 신용보증기금이다. 최초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했다. 중소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0.6%-2.5%의 담보 자금을 수납하고 담보금은 자산총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고 담보 분담한 비율은 70%-80% 등으로 규정되었다. 신용보증기금은 법률을 통하여 자금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담보 행위가 상업은행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관은 자기 위험관리능력을 계속 높이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위험 평가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위험을 분산

63) 구정한, 김연도, 이시연, 전게서, PP.49

하도록 재담보 메커니즘을 설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보증기관의 지원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9년 상반기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신보는 24.7조 원으로 2008년(7.7조 원) 동기 대비 2배 증가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2008년 31.7조 원에서 2009년 44.2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에도 2008년 12.6조 원에서 2009년 17.1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은 2008년 6조 원에서 2009년 11조 원으로 증가하였다.[64] 2008년 기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금액은 50.3조 원으로 은행이 전체 중소기업 대출액의 11.8%에 해당하고 2009년 16.3%로 증가되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의 우량기업에 대한 보증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2007년 30.8%에서 2011년 63.5%로 달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업 업력은 2008년 평균 9.81년에서 2011년 평균 10.51년으로 상승하였다. 보증기업의 총자산은 2008년 평균 29.73억 원에서 2011년 37.3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매출액은 2008년 평균 53.27억 원에서 2011년 66.98억 원으로 증가하였다.[65]

다. 펀드

정부가 투자한 펀드는 개발 펀드와 벤처 투자 펀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개발 펀드 : 정부 개발 펀드의 지원자금은 전문은행 대출을 통하여 펀드의 종류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한다. 2009년까지 한국은 91개 정책기금이 있고 매년 중소기업에 대해 5조 원을 제공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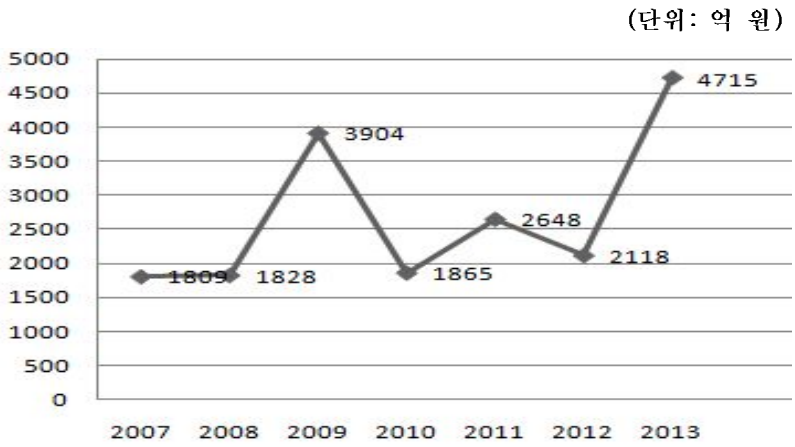
---

64) 楊建生「韓國中小企業融資問題研究」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PP.22-23, 2011.5

65) 구본성「중소기업금융의 새로운 방향과 중장기 과제」한국금융연구원, PP.17, 2013.1.29

동시에 지방정부도 중소기업기금을 설립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 설립 2년 이상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모태펀드(fund of funds) : 정부는 안정적인 벤처투자 자금을 공급하도록 2005년에 결성하였다. 모태펀드는 기업에 분산투자보다 조합투자에 출자하여 투자 위험을 감소시키고 수익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이다. 모태펀드의 투자대상은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이다. 금융위기 이후 벤처투자시장은 크게 위축되는데 중소기업청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발전하도록 2009년 모태펀드의 출자금액을 3,904억 원으로 2008년 1,828억 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2009년 이후 출자금액이 감소하고 2011년 다시 오르는 추세이다. 특히 2013년 기준 모태펀드 출자금액은 4,715억 원에 달했다.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벤처캐피탈」PP.40, 201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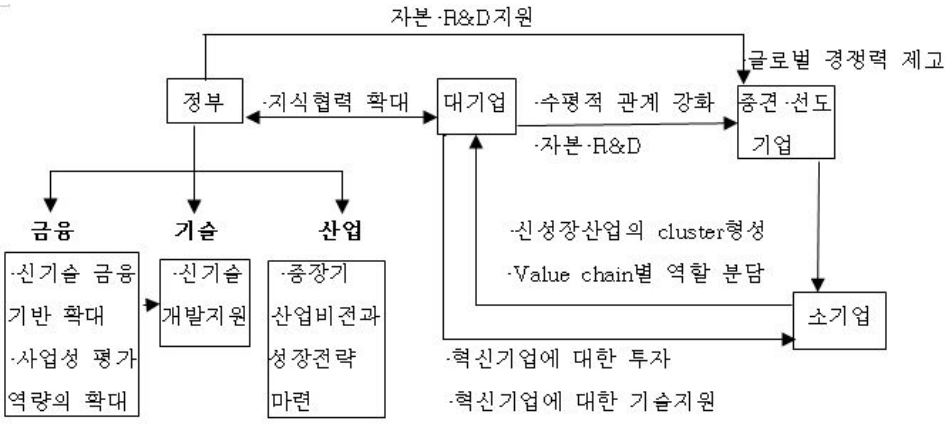
<그림 4-4> 모태펀드 출자 추이

2) 한국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의 개선 방안

한국의 지원정책은 중국보다 일찍 발전하여 상대적으로 선진화되었지만 문제점도 존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한국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타 부문과 협조체계의 구축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급한 다양한 정책금융 제도로 인해 정책금융기관 간 상호 협조·연계가 부족하다. 나중에 중소기업 간의 협조체계를 구조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그림 4-5>와 같다.



자료: 구본성「중소기업금융의 새로운 방향과 중장기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PP.16, 2013.1.29
<그림 4-5>

나. 정책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 대부분은 금융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심사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담보능력이고 중소기업은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의 사후관리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동시에 정책자금이 상업금융기관에게 대출의뢰로 인하여 사후관리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다.[66] 이러한 자금운용은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지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중소기업의 신용평가 및 사후관리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이다.

다. 민간부문의 참여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은 주로 정부 주도형으로 이루어진다. 민간자본의 참여하며 상대적으로 투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분명한 정책자금 공급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규모가 크고 지원대상이 넓어서 정책금융기관 상호 간의 충분히 차별화된 지원을 할 수 없다. 특히 우량기업에 집중하여 지원한 경우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대해 불리하다. 정책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유사한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한도 등을 파악하고 중복성을

66) 권기진「한국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활성화 방안」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45-46, 2009.12

완화해야 한다.

마. 시장 마찰의 감소

<그림 3-2>보면, 한국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의존도는 높다. 손상호(2013)는 정책금융기관의 시장 기능이 높아지면 상업금융기관과 시장마찰이 발생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67]

지금까지 중국과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를 소개하고 개선방안을 전망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중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67) 구정한, 김연도, 이시연, 전게서, PP.65

Ⅴ. 중소기업 자금조달 실태에 대한 실증분석

본 장에서는 중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소기업 금융 현황 및 애로사항, 정책금융 실태 등을 실증분석하고, 한국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였다.

1. 중국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실태 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국 중소기업 자금조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중소기업의 일반현황, 자금조달 현황, 금융지원정책 등과 관련된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메일을 이용하여 2016년 4월 1일부터 2016년 4월 14일까지 300개 기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45개이다.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spss 20.0 및 excel 201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1) 설문대상의 기초통계

<표 5-1>은 응답 중소기업들의 기초통계량이다. 기업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사영기업이 34개(75.6%)로 제일 많았으며, 국유기업 4개(8.9%), 외자기업 2개(4.4%), 합자기업 1개(2.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노동 집약적 제조업이 15개(33.3%)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유형의 기업 13개(28.9%), 도매·소매업 6개(13.3%), 정보전송, 컴퓨터, 스프트웨어업 6개(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령별, 종업원 수별, 전년도 매출액 규모별은 균등하게 분포되었다.

<표 5-1> 응답기업의 일반적 현황

구분		업체 수(개)	비중(%)
기업유형	국유기업	4	8.9
	외자기업	2	4.4
	사영기업	34	75.6
	합자기업	1	2.2
	기타	4	8.9
업종	제조업	15	33.3
	농,임,목축,어업	3	6.7
	도매·소매업	6	13.3
	교통운송업	2	4.4
	정보전송, 컴퓨터, 스프트웨어	6	13.3
	기타	13	28.9
업령	5년 이하	14	31.1
	5-10년	13	28.9
	10년 이상	18	40.0
종업원 수	20인 이하	11	24.4
	20-50인	11	24.4
	50-300인	14	31.1
	300인 이상	9	20.0
전년도 매출액	100만 위안 이하	10	22.2
	100만 위안-500만 위안	12	26.7
	500만 위안-2000만 위안	7	15.6
	2000만 위안-5000만 위안	4	8.9
	5000만 위안 이상	12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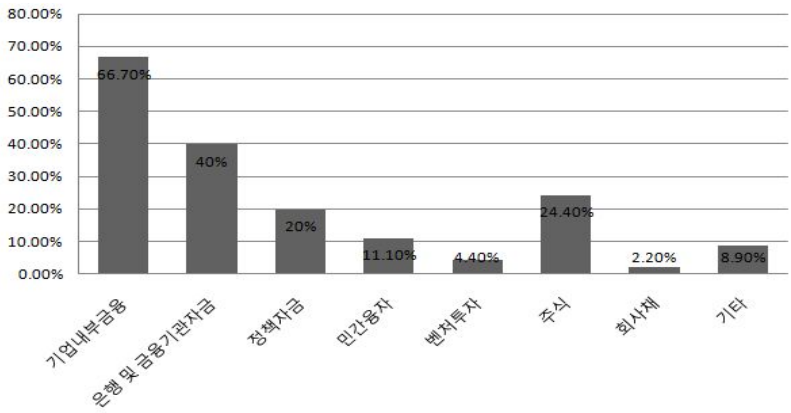
2)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현황 분석

가. 주요 자금조달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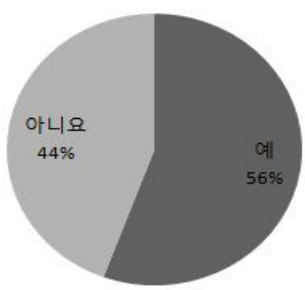
<그림 5-1>을 보면, 중소기업 자금의 주요 원천은 기업의 내부자금이 66.7%로 가장 높았다. 외부자금에 대한 조달 원천으로는 은행 및 금융기관 자금이 4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식 24.4%, 정책자금 20%, 민간융자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때문에 조사결과 백분비는 100% 초과)

<그림 5-2>를 보면, 조사한 중소기업 중에서 56%(25개)의 기업은 외

부자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44%(20개)의 기업은 외부자금을 이용한 경험이 없이 내부자금만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내부자금에 의존하고 은행이나 직접금융의 문턱은 중소기업에게 아직까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1> 주요 자금조달 원천



<그림 5-2> 외부 자금조달 경험

<표 5-2>에서 기업유형별 분석을 살펴보면, 사영기업의 주요 자금원천은 기업의 내부자금(67.7%), 은행 및 금융기관의 자금(41.2%), 주식(2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사영기업도 내부자금(63.6%), 정책자금(45.5%), 은행 및 금융기관 자금(36.4%)에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업종별 분석을 보면, 제조업의 주요 조달원천은 기업의 내부자금(66.7%), 은행 및 금융기관의 자금(66.7%), 주식(33.3%)의 순이었으며. 기타업종의 경우는 내부자금(66.7%), 은행 및 금융기관의 자금(26.7%), 정책자금(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조업이 기타업종보다 외부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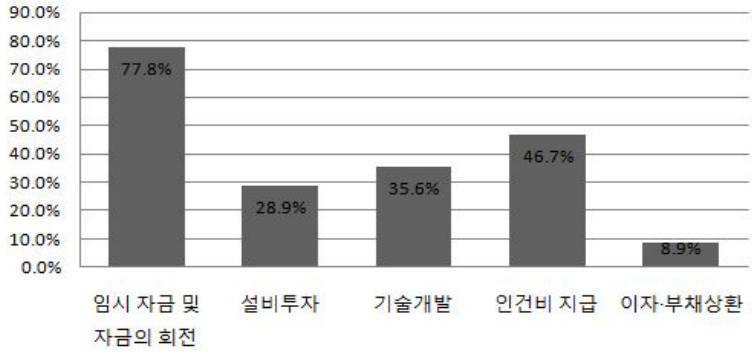
업령별 분석을 보면, 경영 5년 이하 기업의 경우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율은 없었으며, 은행 및 금융기관의 자금이 7.1%로 나타났다. 경영 5년 이상의 기업은 내부자금 61.3%, 은행 및 금융기관의 자금 54.8%, 주식 3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의 중소기업은 경영시간이 길수록 외부자금을 더 쉽게 조달하게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종업원 수 및 전년도 매출액별 분석결과를 보면, 종업원 수 및 매출액이 많을수록 외부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5-2> 유형별 주요 자금조달 원천 **(단위:%)**

구분		내부금융	은행 및 금융기관 자금	정책자금	민간융자	벤처투자	주식	회사채	기타
기업유형	사영기업	67.7	41.2	11.8	14.7	5.9	26.5	2.9	11.8
	비 사영기업	63.6	36.4	45.5	0	0	18.2	0	0
업종	제조업	66.7	66.7	20	6.7	0	33.3	0	0
	비 제조업	66.7	26.7	20	13.3	6.7	20	3.3	13.3
업령	5년 이하	78.6	7.1	0	21.4	7.1	7.1	7.1	14.3
	5년 이상	61.3	54.8	29	6.5	3.2	32.3	0	6.5
종업원 수	50인 이하	86.4	13.6	4.6	22.7	4.6	4.6	0	13.6
	50인 이상	47.8	65.2	34.8	0	4.4	43.5	4.4	4.4
전년도 매출액	500만 위안 이하	72.7	13.6	9.1	18.2	4.6	4.6	0	13.6
	500만 위안 이상	60.9	65.2	30.4	4.4	4.4	43.5	4.4	4.4

나. 조달한 자금의 주요 용도

<그림 5-3>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조달한 자금의 주요 사용처는 임시 자금 및 자금의 회전(77.8%), 인건비 지급(46.7%), 기술개발(35.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복수응답 때문에 조사결과 백분비는 100%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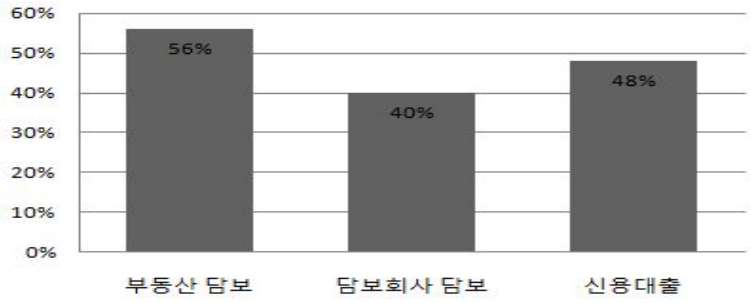
<그림 5-3> 조달한 자금의 주요 사용처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해도 중소기업 조달 자금의 주요 용도는 역시 임시 자금 및 자금의 회전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조달한 자금 대부분은 단기 소액 유동성 자금이라고 판단되었다.

다. 외부 차입시 대출조건

<그림 5-4>를 보면, 전년도에 외부자금을 이용한 업체 중 금융기관 자금 차입시 대출 조건으로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56%로 가장 많았고, 신용대출(48%), 담보회사 담보(40%)의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때문에 조사결과 백분비는 100% 초과)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출할 때 부동산 담보는 여전히 주요 외부 차입시 대출 조건이고 담보회사의 담보도 상당한

수준으로 활용된다고 판단되었다.



<그림 5-4> 중소기업의 외부 차입시 대출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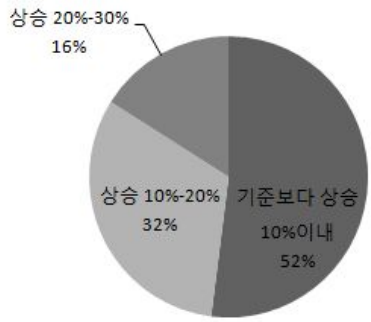
<표 5-3>에서 기업유형별 분석을 보면, 사영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방법은 부동산 담보(55%), 비사영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방법은 부동산 담보 및 신용대출로 각각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때문에 조사결과 백분비는 100% 초과) 이러한 결과는 사영기업이 대출할 때 엄격한 부동산 담보요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경영시간이 5년 이상,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 매출액이 500만 위안 이상의 기업 신용대출의 비중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3> 유형별 중소기업의 외부 차입시 대출 조건 **(단위:%)**

구분		부동산 담보	담보회사 담보	신용대출
기업유형	사영기업	55	40	45
	비 사영기업	60	40	60
업종	제조업	63.6	54.6	36.4
	비 제조업	50	28.6	57.1
업령	5년 이하	50	33.3	33.3
	5년 이상	57.9	42.1	52.6
종업원 수	50인 이하	50	25	25
	50인 이상	58.8	47.1	58.8
전년도 매출액	500만 위안 이하	50	25	37.5
	500만 위안 이상	58.8	47.1	52.9

라. 차입한 자금의 연 평균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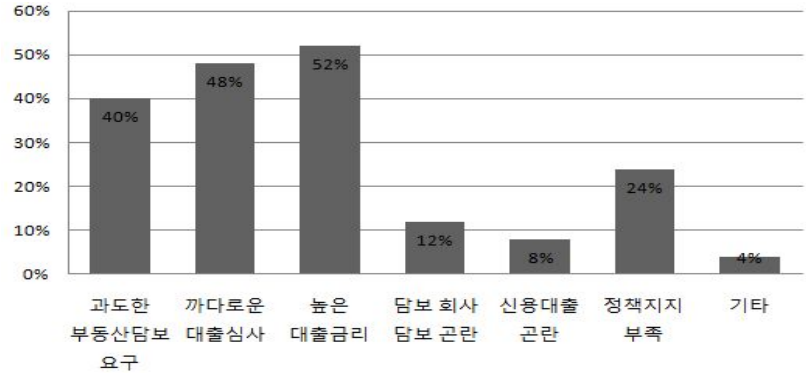
<그림 5-5>를 보면, 외부자금을 이용한 업체의 평균 차입금리는 기준보다 상승 10% 이내(52%), 기준보다 상승 10%-20%(32%), 기준보다 상승 20%-30%(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보다 상승 10% 이내가 대부분 이용한 금리이라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림 5-5> 차입한 자금의 연 평균금리

마.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애로

<그림 5-6>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서 가장 큰 애로상황으로 52%가 높은 대출금리를 꼽았으며, 다음이 까다로운 대출심사(48%), 과도한 부동산 담보요구(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때문에 조사결과 백분비는 100% 초과) 중소기업은 신용 부족으로 금융기관이 높은 금리를 요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



<그림 5-6>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애로

<표 5-4>의 유형별 분석에서도, 역시 높은 대출금리, 까다로운 대출심사, 과도한 부동산 담보요구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상의 애로상황이라는 것이 현실이었다.

<표 5-4> 유형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애로 (단위:%)

구분		과도한 부동산 담보 요구	까다로운 대출 심사	높은 대출 금리	담보 회사 담보 곤란	신용 대출 곤란	정책 지지 부족	기타
기업유형	사영기업	40	45	55	10	10	25	5
	비 사영기업	40	60	40	20	0	20	0
업종	제조업	45.5	54.6	72.7	0	18.2	36.4	0
	비 제조업	35.7	42.9	35.7	21.4	0	14.3	7.1
업령	5년 이하	16.7	33.3	33.3	16.7	0	0	16.7
	5년 이상	47.4	52.6	57.9	10.5	10.5	31.6	0
종업원 수	50인 이하	25	50	25	12.5	12.5	12.5	12.5
	50인 이상	47.1	47.1	64.7	11.8	5.9	29.4	0
전년도 매출액	500만 위안 이하	12.5	50	37.5	12.5	0	12.5	12.5
	500만 위안 이상	52.9	47.1	58.8	11.8	11.8	29.4	0

바. 외부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효과 평가

<표 5-5>에서 기업유형별 분석을 보면, 사영기업에서는 불만은 25%를 차지하지만 만족은 10%를 차지하였다. 비사영기업에서는 불만은 없고 만족이 60%를 차지하였다. 업령별 분석을 보면, 경영시간 5년 이하의 기업에서 불만은 33.3%를 차지하고 만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시간 5년 이상의 기업에서는 불만은 15.8%를 차지하고 만족은 26.3%를 차지하였다. 종업원 수별 분석을 보면, 50인 이하의 기업에서는 불만은 37.5%를 차지하지만 만족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불만은 11.8%를 차지하지만 만족은 29.4%를 차지하였다. 매출액별 분석을 보면, 500만 위안 이하의 기업에서는 불만은 25%를 차지하지만 만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0만 위안 이상의 기업에서는 불만은 17.6%를 차지하지만 만족은 29.5%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경영시간이 길고, 종업원 수가 많고, 매출액이 많은 기업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판단되었다.

<표 5-5> 유형별 외부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효과에 대한 평가 **(단위:%)**

구분		불만	보통	만족
기업유형	사영기업	25	65	10
	비 사영기업	0	40	60
업종	제조업	27.3	54.5	18.2
	비 제조업	14.3	64.3	21.4
업령	5년 이하	33.3	66.7	0
	5년 이상	15.8	57.9	26.3
종업원 수	50인 이하	37.5	62.5	0
	50인 이상	11.8	58.8	29.4
전년도 매출액	500만 위안 이하	25	75	0
	500만 위안 이상	17.6	52.9	29.5

3)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분석

가. 정책자금을 지원한 경험

<표 5-2>와 <표 5-6>에서,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부의 지원자금을 받은 기업은 주로 비사영기업 및 경영 5년 이상,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 전년도 매출액 500만 위안 이상의 기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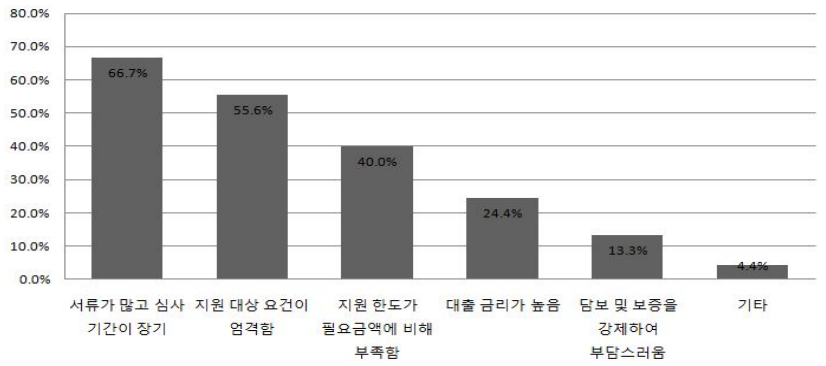
<표 5-6> 유형별 정책자금을 지원한 경험 (단위:%)

구분		예	아니요
기업유형	사영기업	32.4	67.6
	비 사영기업	63.6	36.4
업종	제조업	53.3	46.7
	비 제조업	33.3	66.7
업령	5년 이하	35.7	64.3
	5년 이상	41.9	58.1
종업원 수	50인 이하	27.3	72.7
	50인 이상	52.2	47.8
전년도 매출액	500만 위안 이하	27.3	72.7
	500만 위안 이상	52.2	47.8

나. 정책자금 제도의 문제

<그림 5-7>을 보면, 조사한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서류가 많고 심사 기간이 장기가 66.7%, 지원 대상 요건이 엄격함이 55.6%, 지원 한도가 필요금액에 비해 부족함이 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때문에 조사결과 백분비는 100% 초과)

각종 유형별로 구분해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의 문제는 역시 서류가 많고 심사 기간이 장기가 제일 많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5-7> 정책자금 제도의 문제

다. 정책자금 지원의 바람직한 방향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영시간 5년 이하의 기업은 효율적인 정책자금 지원 방향으로 정책자금 저리대출 지원 확대(57.1%), 제3자 담보대출 지원 확대(35.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시간 5년 이상의 기업은 정책자금 저리대출 지원 확대(58.1%), 장기자금 지원(45.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종업원 수 50인 이하 기업은 정책자금 저리대출 지원 확대(50%), 제3자 담보대출 지원 확대(36.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업원 수 50인 이상 기업은 정책자금 저리대출 지원 확대(65.2%), 장기자금 지원(52.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년도 매출액 500만 위안 이하 기업은 정책자금 저리대출 지원 확대(59.1%), 제3자 담보대출 지원 확대(31.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 500만 위안 이상 기업은 정책자금 저리대출 지원 확대(56.5%), 장기자금 지원(56.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복수응답 때문에 조사결과 백분비는 100% 초과)

종합하면 기업의 경영시간이 길수록, 종업원 수 및 매출액이 많을수록

정책자금의 저리 대출 지원과 장기자금 지원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꼽은 반면, 기업의 경영시간이 짧을수록, 종업원 수 및 매출액이 적을수록 정책자금의 저리대출 지원과 제3자 담보대출 지원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지적하였다.

<표 5-7> 유형별 정책자금 지원의 바람직한 방향 (단위:%)

구분		정책자금 저리 대출 지원 확대	장기자금 지원	제3자 담보대출 지원 확대	정부 투자 기금 확대	기타
기업유형	사영기업	61.8	35.3	29.4	35.3	8.8
	비 사영기업	45.5	45.5	27.3	36.4	0
업종	제조업	46.7	33.3	40	46.7	13.3
	비 제조업	63.3	40	23.3	30	3.3
업령	5년 이하	57.1	21.4	35.7	28.6	7.1
	5년 이상	58.1	45.2	25.8	38.7	6.5
종업원 수	50인 이하	50	22.7	36.4	31.8	9.1
	50인 이상	65.2	52.2	21.7	39.1	4.4
전년도 매출액	500만 위안 이하	59.1	18.2	31.8	27.3	9.1
	500만 위안 이상	56.5	56.5	26.1	43.5	4.4

2. 한국과의 비교분석

한국 중소기업중앙회(2015)가 2015년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종업원 수 5-300인의 중소제조업체 30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외부자금을 조달한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종류는 은행자금이 79%로 월등히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책자금이 15.1%, 회사채가 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 모두 외부자금 조달은 주로 은행 및 금융기관에 의존한다는 것이 현실이었다.

한국에서 외부자금을 이용한 업체 중 금융기관 자금 차입시 대출 방법으로는 부동산 담보대출(46%)이 가장 많았고, 신용대출(22.4%), 담보회사 담보(16.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국 중소기업이 대출할 때 부동산담보는 여전히 주요 자금조달 방법이고 담보회사의 담보가 차지한 비중은 부동산담보에 비해 낮았다.

한국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업체에서 가장 큰 애로 상황은 높은 대출금리가 29.6%를 꼽았으며, 다음이 까다로운 대출심사가 23.3%, 과도한 부동산 담보요구가 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순서는 중국과 같다. 양국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문턱을 낮추고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조사한 한국 중소기업들이 지적한 정책자금 제도의 문제점은 지원 대상 요건이 엄격함이 18.6%, 신청방법 등 안내가 부족이 17.4%, 지원 한도가 필요금액에 비해 부족함이 16.4%, 서류가 많고 심사 기간이 장기가 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정책자금 저리대출 지원 확대(26.5%), 장기자금 지원(1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유형별로는 소기업은 정책자금 저리대출 지원 확대(26.6%), 장기자금 지원(19.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중기업은 정책자금 저리대출 지원 확대(26.1%), 경기불황시 중기업 대출축소 관행 개선(2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양국 모두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와 장기 정책자금 지원이 차지한 비중이 높다.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면 양국은 모두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제정하였다.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목적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목적은

금융기관이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자금지원이 중심이지만, 중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법률지원이 중심이다. 중국에 비해 한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식은 더욱 다원화되었지만 양국 모두 중소기업 자금조달 상의 애로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Ⅵ. 요약 및 결론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내·외부적인 문제로 인해 자금조달 상의 애로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 특히 평시에도 자금조달 상의 애로에 처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위험회피성향의 강화로 자금난을 더욱 크게 겪게 된다. 이는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중소기업은 정보 비대칭 때문에 시장실패를 완화하기 위하여 정책금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체계의 건전은 중소기업 자금조달 상의 애로를 완화할 수 있다. 동시에 상업금융과 정책금융 간의 보완적인 관계를 설립하면 자금사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현황 및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금융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양국의 효율적인 중소기업 금융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양국 중소기업금융은 간접금융 중심으로, 은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적극성이 부족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높고, 담보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단기유동성 소액자금 대출에 편중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대다수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없는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의 차입이 어려워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직접금융시장은 정보 비대칭과 상장조건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양국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금지

원정책들이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부문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제정, 신용담보를 통한 보증지원, 중소기업 전문 기금의 설립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지원, 기업은행, 중진공 및 산업은행의 직·간접 자금지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모태펀드 등 여러 정책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급하는 정책금융을 확대하였지만 중소기업 자금조달 상의 문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 이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중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양국 중소기업의 외부 자금차입은 주로 은행대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은행의 대출방식은 담보대출 위주로, 대출심사도 기업의 매출액 규모, 신용도, 업령 등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매출액 및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경영시간이 길을수록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쉽다고 판단된다. 한편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나타나는 주요한 애로 상황은 높은 대출금리, 까다로운 대출심사, 과도한 자산 담보요구이다.

다음, 양국 모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할 때 지원기업도 기업의 매출액 규모, 업령 등을 중시하고 있다. 대부분 창업 초기의 기업은 정책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중소기업 신용부족으로 인해 은행대출 금리가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모두 중소기업은 저리와 장기 정책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 계속 저리로 지원하면 시장효율성을 깨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한국과 중국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는 상업은행 위주의 중심이다. 한

국의 상업은행은 사유은행이지만 중국의 상업은행은 국유은행이다.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목적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목적은 금융기관이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자금지원이 중심이지만, 중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법률지원이 중심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라 양국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금융 시스템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실제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라 현재 양국 중소기업 정책 지원대상은 창업 초기 소규모 중소기업보다 대규모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책자금을 지원을 할 때 위기로 인해 취약한 기업들을 판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조사 시스템의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민간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은 정책지원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지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수단은 업령별로 유효성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라 양국 중소기업 발전규모에 따라 다르게 바림직한 방향이 있다. 향후 양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발전단계에 따라 각각의 단계에 맞게 지원하기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설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양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식은 주로 은행대출에 의존하고 대출 심사 서류가 복잡하며, 심사기간이 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양국은 전국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완비하여, 심사 표준을 동일하게 제정하고 심사 표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에 빠르게 지원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비해 한국의 지원방식은 더욱 활성화되어있다. 한국정부

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할 때 직접대출 및 간접대출 2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는 직접지원 방식만 사용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대리대출 지원정책을 적용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만약 중국정부가 대리대출 방식을 적용하면 금융기관의 감독·심사 권리를 잘 이용하고 정부의 스트레스도 완화할 수 있다.

중국의 은행은 국유은행이고 정부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매년 여러 가지 "의견"하고 "통지"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한국 상업은행은 사유은행이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자금지원이 중심이다. 한국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적극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대출이자율 변동 범위를 확대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양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주로 은행대출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보다 다른 지원방식을 탐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중소기업 자금조달 상의 곤경을 해결하려면 정부의 정책금융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 자체의 자질을 제고하고, 민간금융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중소기업판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자의 능력 때문에 다음 두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중국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의 표본 수가 45개가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중국 중소기업 자금조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설문지에서 외부자금 중 조달비중이 낮은 주식, 회사채, 벤처투자, 그림자 금융 등에 관한 추가적인 문항이 없다는 것이다.

향후 설문조사에서 조사문항을 추가하고 표본 수가 늘려 설문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연구를 추가로 수행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강동수·이준엽「중국의 중소기업 금융정책」KDI출판, PP.1-2, 2010

구정한, 김연도, 이시연「국내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와 효과 분석」한국금융연구원, PP.14-15, PP.49-56, 2015.3

구본성「중소기업금융의 새로운 방향과 중장기 과제」한국금융연구원, PP.4, PP.16-17, 2013.1.29

권기진「한국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활성화 방안」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12

박양「중국 중소기업의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한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8

이근영「주요국의 금융제도와 시사점」한국은행출판, PP.115-138

이제영「중소기업 발전에 관한연구-금융지원제도 중심으로」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왕린린「중국과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비교 분석 연구」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2

장광영「중국 중소기업금융 발전 방안에 관한연구」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12

정경위「중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에 대한 연구」한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2

「중국의 금융제도」한국은행 2012.6

호쟁「중국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12

「한국의 금융제도」한국은행 2011.12

家森信「地方金融系統的危机和中小企業金融」2003

柯芳「轉型期我國中小企業政策演變研究」江西師范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6

卿淑群「政策性銀行學」西南財經大學出版社, 成都, 1999

景玉琴「构建中小企業政策性金融支持体系」上海金融學院學報, PP.31-37, 2004.5

高瑾「中國影子銀行的發展對中小企業融資影響的研究」浙江大學, 碩士學位論文, 2015.1

賈芳「中國中小企業融資困境分析」中國鄉鎭企業會計, PP.49-50, 2010.5

郭娜「构建中小企業政策性金融体系的啓示」証券金融論壇, PP.28-31, 2008.12

鞏保成「중국과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비교연구」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12

歐陽曉「中國支持中小企業發展的政策和服務体系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9.5

金小娟, 陳志軍「韓國支持中小企業融資政策的經驗与啓示」中國高新區, PP.111-114, 2010.4

金永泰「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문제점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8

祁素艷「商業銀行對中小企業的貸款現狀研究」現代經濟信息, PP.272, 2012

戴小平,潘慧「關于建立我國中小企業政策性銀行的思考」上海金融學院學報, PP.17-24, 2004.4

呂品「商業銀行對中小企業融資問題研究」首都經濟貿易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2

呂玲「政府針對中小企業的金融政策問題研究」蘭州大學，　碩士學位論文，2014.9

盧憲涉「中小企業政策資金扶持的效率化分析」2005

盧馨，方睿孜，毛丹「我國影子銀行對中小企業融資困境的影響」經濟与管理，PP.64-74，2015.5

龍建成，樊曉靜，張雄「利率變動，影子銀行与中小企業融資」金融論壇，PP.40-42，2013.7

文桂禾「我國中小企業金融支持体系建設与中小企業發展」西南財經大學，碩士學位論文，2009.12

白欽先·薛譽華「各國中小企業政策性金融体系比較」中國金融出版社，2001.6

徐軍輝「中國式影子銀行的發展及其對中小企業融資的影響」金融論壇，PP.11-21，2013.2

石岩「國外中小企業融資体系及對我國的啓示」河北大學，　碩士學位論文，2010.5

宋明，劉斯文「我國中小企業融資問題研究」商業經濟，PP.81-82，2013.8

宋建玲「小額貸款公司助力中小企業發展研究」合作經濟与科技，PP.44-45，2016.1

申星植「提高韓國中小企業國際競爭力策略研究」浙江大學，　碩士學位論文，2003.12

楊建生「韓國中小企業融資問題研究」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2011.5

楊曉慶「日本韓國中小企業融資研究」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2013.12

吳義國「建設中國中小企業政策性金融支持体系」管理世界，　PP.129-130　2004.12

吳媛芳「后危机時代下我國中小企業發展的政策性金融体系建設思考」山西財經大學，碩士學位論文，2012.6

吳亞錦「完善我國支持中小企業發展的金融政策体系」鄭州大學，碩士學位論文，2013.5

吳岩「构建我國中小企業政策性金融体系」資本運營，PP93-95，2015

王翀「韓國中小企業融資的經驗及對我國的啓示」中國物价，PP.76-77，2015.10

王雨婷「中小企業融資問題探討」合作經濟与科技，PP.58-59，2016.1

劉合生「政府促進中小企業發展政策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2012.10

李明義·劉景山「談政策性金融對中小企業的融資支持」金融論壇，PP.286-288，2004.5

李力峰「政策性金融支持中小企業融資對策研究」太原理工大學，碩士學位論文，2007.5

李志广「借鑒印度經驗建立和完善我國中小企業政策性金融支持体系」河北大學，碩士學位論文，2009.5

李志博「韓國中小企業融資体系研究」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2011.5

李年宰「韓國中小企業政策研究」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2011.12

李子彬「中國中小企業2012藍皮書」中國發展出版社，2012.11

李靜「我國中小企業融資現狀分析」財政金融，PP.193，2015.9

張美華「韓國中小企業政策性金融体系及我國的比較与借鑒」會計之友，PP.50-51，2010.6

張翔「德國中小企業發展對中國的啓示」武漢科技大學,碩士學位論文，2014.5

蔣平「中國中小企業融資担保制度問題研究」西南財經大學，博士學位論文，2011.4

叢飛「中小企業融資中的政府扶持体系研究」陕西師范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5

鐘鳴「關于建立我國中小企業政策性金融体系的思考」安徽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4

蔡玮「關于构建我國中小企業政策性金融机构的研究」西南財經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4

畢佳「政府對中小企業金融扶持政策研究」上海交通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4

Aoki Masahiko「比較制度分析」周黎安譯, 上海遠東出版社, 2001

Berlin M. and Mester L「Deposits and Relationship Lending」 Working Paper, PP.22, 1998

Stiglitz J. E and A. Weiss「Credit Rationing in Markets with Imperfect Information」American Economic Review, PP.390-410, 1981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SME's financial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Focused on policy financial system—

Xiaowen Ma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play a central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Particularly in Korea and China, SME's play a major part both in production and employment. However, SME's in the two countries have financing difficulties because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causes. This has become the core issues to obstacle the growth of SME's. The market failure caused of information asymmetric should be solved by using the support of policy finance.

This study provides an overview of the important role of SME's in China and South Korea on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Meanwhile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tatus of SME's financing and SME's policy financial system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get the improvement plan. Then proposed the inspiration about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bilateral financial system of SME's. We hope to make 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bilateral SME's policy financial system through this study.

In particular, make the questionnaire of status of Chinese SME's Financing, among them, take empirical analysis of financial situation, financing difficulties, financial policy of SME's, then compared with the findings in Korea. Part of empirical analysis using two software of SPSS20.0 and EXCEL2013 to make frequency analysis and cross analysis.

Thes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study. 1. Strengthen SME's Assessment Survey System continually in order to improve efficiency of support of SME's both in China and Korea. At the same time, exclude corporations which can financing in the private financial markets. 2. The two countries should develop different support programs according to the different stages of the development of SME's. 3. The two countries should unify standard of review, and support rapidly when SME's meet the standard of review. 4. Chinese government should cite acting lent support policy like Korea to ease government's pressure. 5. Korea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motiv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for loans to SME's. Finally, the two countries support policy for SME's based on bank lending, so other ways should be developed to support.

Meanwhile in order to solve the financing difficulties of SME's on the fundamental, SME's should also improve their strength, play to the potential power of private finance, and also improve SME's board.

Keys: SME's, Financing, Obstacle, Policy Financial System

부 록

설 문 지

尊敬的先生/女士：

您好！我是一名在韓國留學的大學研究生，爲了獲取畢業論文的有效數据，設計了一份旨在了解中小企業融資模式的調查問卷，眞誠地想獲得您的帮助.

本問卷采用匿名方式作答，企業情况不對外公開，所有資料將只用于學術研究. 問卷共有16个問題，大約占用您3—5分鐘的時間，您愿意參加嗎？

如果您愿意參加，那么請点擊下面的鏈接，請于4月15日之前作答.

如果您不愿意參加，感謝您百忙之中看了我的這封郵件.

如有疑問請与我聯系 E-mail: maxiaowen0303@163.com

祝您度過美好的一天. 謝謝

誠信女子大學 大學院

經營學部

馬 曉 文

關于貴公司基本情況：

1.貴公司的所有制性質爲（ ）

A. 國有企業

B. 外資企業

C. 民營企業

D. 中外合資企業

E. 其它

2.貴公司所屬行業（ ）

A. 生產制造業

B. 農林牧漁業

C. 批發和零售業

D. 交通運輸業

E. 信息傳輸，計算机服務和軟件業

F. 其它（請說明）

3.貴公司的經營時間爲（ ）

A. 5年以內

B. 5-10年

C. 10年以上

4.貴公司共有多少名職員（ ）

A. 20名以下

B. 20-50名

C. 50-300名

D. 300名以上

5.貴公司去年的年銷售額爲（ ）

A. 100万元以下

B. 100-500万元

C. 500-2000万元

D. 2000-5000万元

E. 5000万元以上

關于貴公司融資現狀方面：

6.貴公司的主要資金來源渠道爲【可多選】（ ）

A. 企業內部融資（自籌）

B. 銀行等金融机构貸款

C. 政策資金（政府出資的信用担保机构担保支援，政府投資基金等）

D. 民間借貸

E. 風險投資

F. 股權融資

G. 債券融資

H. 其它（請說明）

7.貴公司融資的資金將主要用于【可多選】（ ）

A. 臨時或日常性周轉

B. 設備更新

C. 技術開發

D. 人工費

E. 利息，負債償還

F. 其它(請說明)

8.貴公司有從外部進行融資（銀行等金融机构貸款，政府政策資金等）的經驗嗎（ ）

A. 有 (請按順序継續答題)

B. 无 (請直接轉至14題)

9.若有，貴公司主要通過什么方式進行融資【可多選】（ ）

A. 抵押（不動産)

B. 担保公司担保

C. 信用貸款

D. 其它(請說明)

10.貴公司從金融机构(銀行和信用社）平均年融資費率（利息+費用）爲（ ）

A. 上浮10%以內

B. 上浮10%-20%

C. 上浮20%-30%

D. 上浮30%-40%

E. 上浮40%以上

11.貴公司主要從什么金融机构獲得貸款？（ ）

A. 大型商業銀行

B. 股份制商業銀行

C. 城市商業銀行

D. 農村信用社

E. 其它(請說明)

12.貴公司認爲從銀行等金融机构獲得貸款障碍的主要原因是？【可多選】（ ）

A. 抵押品（不動產抵押）要求過高

B. 貸款審查手續繁瑣

C. 貸款利率或其它成本太高

D. 難以獲得担保公司担保

E. 信用貸款困難

F. 政府政策支持力度不足

G. 其它（請說明）

13.貴公司對從外部進行融資（銀行等金融机构貸款，政府政策資金等）的效果的評价（ ）

A. 十分不滿意，

B. 不滿意

C. 基本滿意

D. 比較滿意

E. 非常滿意

14.貴公司有沒有得到過政府政策資金（政府出資的信用担保机构担保支

援，政府投資基金等）方面的支持？（ ）

A. 有

B. 无

15.貴公司認爲政府政策資金的發展所面臨的問題是【可多選】（ ）

A. 政府支援資金的申請材料夏雜，申請時間長

B. 支援對象條件嚴格

C. 支援的金額与需求的金額差距大

D. 政策支援資金貸款利息高

E. 强制要求担保

F. 其它（請說明）

16.貴公司最需要政府提供以下哪方面融資扶持政策的支持？【可多選】（ ）

A. 政策資金低息貸款支援擴大

B. 長期貸款支援擴大

C. 第三方担保貸出支援擴大

D. 政府投資基金的扶持

E. 其它（請說明）

再次感謝您的協助